

#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대청도 구) 면사무소, 인천광역시 옹진군 대청면 대청리 413-2

**2018.11.25-12.01**

인천문화예술회관 소전시실,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149

**2019.01.04-01.10**

A West Sea Peace Art Project,  
A Culture and Arts Grant Program of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2018년 초판 출판

본 도록은 인천문화재단지원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의 일부로 진행된 전시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을 기록한다.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지하며,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저작권자와 서면 계약을 맺어야 한다.

© 김예미, 한행길

문의:unifykorea.hhan@gmail.com

Website: eraofpeacepeacefulland.com

*An Era of Peace, A Peaceful Land*

First published 2018

This catalog documents the exhibition, *An Era of Peace, Peaceful Land*, a part of the West Sea Peace Art Project, A Culture and Arts Grant Program of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This book is in copyright. Subject to statutory exception and to the provisions of relevant collective licensing agreements, no reproduction of any part may take place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the copyright owners.

© Yemi Kim, Heng-Gil Han

Inquiries: unifykorea.hhan@gmail.com

Website: eraofpeacepeacefulland.com



Former Myeon Samuso of Dae Cheong Do

413-02 Daecheong Ri, Daecheong Myeon, Ongjin Gun, Incheon City

**2018.11.25-12.01**

Incheon Culture & Arts Center

Incheon Metropolitan City, Namdong Gu, Yesul Ro 149 (Guwl Dong)

**2019.01.04-01.10**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목차

## Table of Contents

I. 들어가기

II. 전시/공유

III. 현장/작업

IV. 반응/결과

I. Introduction

II. Exhibition/Share

III. Site/Work

IV. Reactions/Outcomes



# I. 들어가기

## Introduction

# 기획자의 말

한행길, 예술감독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는 평화의 의미를 재확인한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고, 사람들의 만남에서 싹이 튼다는 개념을 실천하려는 사업이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의견의 차이도 있지만, 그런 의견 차이는 단지 세계의 다양성을 재확인 할 뿐이다. 설불리 정의와 진리를 들 먹이며 서로 싸울 필요는 없다. 이 전시는 이경모 전시감독과 김예미 팀 대표와 협력으로 이루어진 사업이다. 팀 워크의 힘을 제시하는 전시는 이미 평화구축의 기본적인 조건 중의 하나인 협력의 자세를 뚜렷이 실행하고 있다.

전시는 일상과 격리되어 삶과 동떨어진 동시대미술의 소외적인 태도를 문제로 지적한다.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모순의 법칙으로 전개되어온 동시대미술의 대결구도와 냉전미학을 그 소외성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협력과 공존, 상생의 관점에서 본 동시대미술의 가능성을 탐색한다. 전시는 지난 70여년간 간과되어 왔던 동시대미술의 한 중요한 요소, 평화 구축의 조건을 기반으로 삼아 전개되는 상생의 미학을 실천하는 동시대미술의 면모를 발견하려는 노력이다. 이 탐색작업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론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냉전미학과 공존하는 상생미학의 관계를 밝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전시는 다수의 볼륨으로 구성된 대하드라마 처럼 전시 작가와 전시 작품 내역이 발전하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리즈로 구상되었다. 캐나다에서 싹튼 이 전시는 인천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 뿌리가 앞으로 뉴욕에서 성장하고 북경에서 가지가 번성하고 그 어디선가 꽃을 피우는 것이 전시의 성장궤도이다. 전시를 시리즈 포맷으로 구상한 이유는 평화는 상태가 아니고, 평화구축은 일회적인 행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는 끊임없는 참여를 요구하는 과정이다.

이 전시의 씨앗을 제조할 때 후원한 앤디와홀시각예술재단, 그 씨가 싹이 트게끔 온기를 제공한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 유엔사무실, 그리고 그 싹이 죽지 않도록 활력을 제공한 인천문화재단에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전시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오는 전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수분을 제공한 뉴욕문화성의 지원에 감사드린다.

또한 커튼 뒤에서 아낌 없이 협조해준 뉴욕 코리아아트포럼 일동과 오자누스 아트스페이스, 북경의 만수대 아트 갤러리와 고려투어, 그리고 이자리에서 일일이 언급하지 못하는 모든 협조자님들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전시에 작품을 제공해 주신 출품작가분들과 연평도, 대청도, 백령도 현지탐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참여작가님들께 감사드린다.

## Curator's Statement

Heng-Gil Han, Artistic Director

An Era of Peace, Peaceful Land is an exhibition project that redefines the meaning of peace. Peace is not an absence of a war. The project implements the idea that peace is germinated only when people are able to meet and communicate one another. When people meet, they show differences of opinion. But the differences only confirm the diverse facets of one world. There is no need to rush after justice and truth, ending up fighting one another. This exhibition is curated and produced in collaboration with Gyeongmo Lee and Yemi Kim. By showing the power of teamwork, the exhibition clearly realizes the attitude of being cooperative,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peacebuilding.

The exhibition points out the isolation of contemporary art from everyday life. In separation from life, contemporary art alienates its audiences. Since WWII, contemporary art has been advancing according to the logic of contradiction, and the field is structured around creating confrontation. I call this the aesthetics of Cold War, and it has dominated the contemporary art field causing a problem of alienation within it. As an alternative, the exhibition explores a possibility for contemporary art that is exemplified by the perspective of sang-seng (i.e. living together), coexistence and cooperation. The exhibition is an endeavor to discover an important element of contemporary art that has been ignored for the last seventy years or so, a facet of contemporary art in practice, of the aesthetics of sang-seng which advances according to conditions of peace-building. It is too early to offer a final assessment as this work of exploration is currently in progress, but I anticipate that the exhibition will illuminate the co-existen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aesthetics of Cold War and that of sang-seng.

This exhibition is conceived as a series, like a feature drama, that is composed of many episodes and continues over several seasons. The exhibition began to sprout in Waterloo, Canada and to take root in Incheon, Korea. It should grow further in New York over the next year, branch in Beijing and flower somewhere else in the future. The reason to conceive of this exhibition as a series is that peace is not a state, nor is peacebuilding a one-time event. Peace is a process that requires ongoing engagement.

I thank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Visual Arts, who made possible the germination of the exhibition. I also thank the UN Office of the Mennonite Central Committee, which provided warmth for the exhibition to sprout. I tremendously thank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who provided this new sprout with the energy to survive. I thank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which has continuously nurtured the project from the beginning.

I thank the Korea Art Forum and the Ozaneaux ArtSpace in New York, as well as the Mansudae Art Gallery and Koryo Tour in Beijing. These organizations and corporations helped to locate rare artworks from North Korea or lent them to the exhibition. I also thank all the people whom I cannot name individually, but have been assisting the project behind the scenes. Last but not least, I thank all the artists who lent works of art to this exhibition, or participated in the exploration of the West Sea five islands.

그레벨 갤러리 전시 설치 모습  
An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at the Grebel Gallery



# 새로운 평화의 시대와 평화로운 땅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의 시작

더글라스 호스테터, 코리아아트포럼 이사장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는 2018년 7월 12일부터 10월 5일 까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워털루시에 있는 그雷별 갤러리에서 맨 처음 <새로운 평화의 시대와 평화로운 땅>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었다. 그 갤러리는 워털루 종합대학교 캠퍼스 안에 위치한 콘라드 그雷별 대학의 키드레드 크레딧 유니온 평화진보센터의 부설기관이다. 이 전시의 제목은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 위원장이 4.27 정상회담 후에 발표한 연설 중에서 인용한 구절이다. 전시의 주제는 아래와 같다:

평화는 전쟁의 부재가 아니라 경계를 너머 타자와 자유롭게 교류하는 생생한 과정이자 타자의 가치와 관점을 이해하고 정의와 진실을 실현하는 노력이다

이 주제는 전시에서 발표되는 작가와 작품의 선정에서 실현되었다. 이북의 한경보는 1989년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이 평양에서 개최되는 중 조직된 데모를 재현한다. 유사하게 이남의 서용선은 2016년 서울에서 일어난 촛불혁명을 묘사한다. 같은 전시에서 관객은 최창호, 김현일, 오성일 등 이북작가들의 백두산 그림을 이남 작가 신태수가 그린 한라산과 비교할 수 있다. 비슷한 방식으로 이남작가 주태석의 한국풍경이 있었고, 관객은 자연과 풍경에 대한 코리아의 관점을 로버트 모리스와 조엘 카레이로 등 미국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할 것을 도전받았다.

전시에서 발표된 사진은 이북의 김룡, 김명운, 흥성광과 중국의 센양, 뉴욕의 이자운으로 구성된 다섯 작가들의 사진을 비교했다. 네개의 지구 중심도시들의 도시풍경과 자연풍경을 소재로 하는 수 많은 사진은 인류의 보편적인 유산과 각 작가들의 차별되는 관점을 제시했다. 이북작가 흥성광의 개인 초상화와 그 옆에 배치된 미국작가 엠마누엘 파우레의 그룹 초상화를 같은 벽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전시는 더욱 풍부해졌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와 평화로운 땅>은 콘라드 그雷별 대학 갤러리에서 7월 12일부터 전시되고 있었으나 전시 리셉션이 9월 20일로 잡혀있었다. 리셉션은 큐레이터 한행길이 전시를 소개하는 강의를 하고 관객에게 전시 투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채워진다는

계획이 설립되어 있었다. 오프닝 날 프로그램이 시작하기 전에 근처의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이 미술수업을 대신하여 갤러리에 왔다. 그 학생들의 대부분은 동양에서 온 유학생들이었고 전시 투어를 미리 받으러 왔다. 행길은 한 시간 이상을 소요하면서 배경이 아주 다른 동양계와 캐나다 학생들의 주목을 끌도록 전시를 설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서구매체에 의하여 각인된 선전미술이 아닌 이북미술을 처음으로 대면했다. 학생들은 그들에게 진정한 이북미술을 소개하고 이남미술과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뉴욕미술을 이북미술과 함께 전시하는 한국계 미국인 큐레이터를 만날 있는 것에 놀라와 했다. 그 반 전체는 행길에게 그들과 함께 전시 앞에서 사진 촬영할 것을 요청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코리아는 서구에서 뉴스거리였다. 캐나다는 배후에서 이북과 이남, 그리고 미국의 교류를 격려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지난 1월에 캐나다는 미국과 함께 코리아 반도의 보안과 안정을 토론하는 밴쿠버 외교장관 회담을 주최했다. 지난 7월에 캐나다는 평양 농과학 아카데미의 학자 다섯명의 방문을 허용했다. 그 학자들은 사카치안에 있는 마니토바 대학이 닷새 동안 제공하는 농업에 대한 집중 수업에 참가했다. 9월 말에 캐나다 외교부는 캐나다 정부 관료와 캐나다 비영리 사단법인들과 만나기 위하여 이북 외무성이 파견하는 사절단의 오타와 방문을 주최했다.

그雷별 갤러리는 전시 리셉션에 온 사람들로 가득 찼다. 콘라드 그雷별 대학 교수들과 학생들, 다른 대학에서 온 동료들, 워털루시의 한국인 커뮤니티, 그리고 남부 온타리오에서 온 사람들 이었다. 갤러리 디렉터의 환영사 후에 행길은 코리아 아트 포럼 업무의 개관과 예술의 힘에 대한 그의 믿음을 설명했다. 그는 예술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었다. 예술은 사람들이 국적과 문화정체성을 초월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상호이해와 보편적인 인류애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는 그가 함께 자란 이북미술에 대한 편견을 기술했다. 또한 그는 그가 선정한 미술작품들이 그 편견을 깨는 양상에 대하여 설명했다. 그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와 평화로운 땅> 전시를 실현 시키기 위하여 쏟아부은 수년간의 노력과 인맥을 설명했다. 전시개최 연설 후에 행길은 전시투어를 제공했다. 그는 전시작품들을 각기 설명했고, 작가를 소개했고, 그 작품들이 선정된 이유를 밝혔다. 또한 한 작품과 다른 작품의 관계도 해설했다.

나는 관객중에서 특히 한국 외교부에서 참사가 참석한 점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리셉션에 참석하기 위하여 100킬로미터 이상을 토론토에서 워털루로 달려왔어야만 했다. 그는 자기 소개를 하고 전시를 용이하게 만든 나에게 감사를 표시했다. 그는 오타와에 방문하는 이북

외무성 사절단에 대한 정보를 주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내가 몸담고 있는 엔지오가 이북 사절단과 캐나다의 엔지오들과 만나는 회의에 참여할 것을 요청했다. 그것은 충격 그 자체였다. 이북 외교관과 만나는 자리에 대표적인 캐나다 엔지오들이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는 이남의 참사가 이 자리에 온 것이다. 우리의 리셉션은 이미 전시의 주제를 — 경계를 너머 자유롭게 소통하고 상대의 가치와 세계관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동시에 정의와 진리를 추구한다는 주제를 — 실행하고 있지 않는가?

## A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 The beginning of the project

**Doug Hostetter, Chair of the Board, Korea Art Forum**

*An Era of Peace, A Peaceful Land* started from July 12 – October 5, 2018, at the Grebel Gallery in Waterloo, Ontario Canada, with the title, *A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The gallery is part of the Kindred Credit Union Centre for Peace Advancement at Conrad Grebel University College on the campus of the University of Waterloo, and has a mandate to support artistic experimentation in pursuit of justice and peace. The title of this exhibit came for phrases taken from the speeches of South Korean President Moon and North Korean Chairman Kim at the inter-Korean Summit on April 27, 2018. The theme of the exhibit was:

*Peace is not an absence of war, but the living process of freely interacting with others across borders seeking to understand their values and perspective, while striving for justice and truth.*

This theme was carried out in the selection of the artwork and artists represented in the show. Kyung-bo Han from North Korea painted a demonstration in Pyongyang in 1989 during the 13th 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and Suh Youngsun from South Korea portrayed demonstrations from the Candlelight Revolution in Seoul. In the same exhibit viewers were able to compare paintings of Mt. Paektu in North Korea by North Korean artists Chang-Ho Choi, Hyun-il Kim and Sung-il Oh with a painting of Mt. Halla in the South by South Korean

artist Tae-soo Shin. Similarly there was a Korean landscape by Tae-Seok Ju from South Korea. The viewer was then challenged to compare those Korean perspectives of nature and landscape with pieces by American artists, Robert Morris and Joel Carreiro.

The photography in the exhibit compared and contrasted the photographs five artists: Song-Gwang Hong, Myong Un Kim and Ryong Kim from North Korea, Shen Yang from China and Zaun Lee from New York. The extensive collection of photographs of urban and cultural landscapes in four major cities around the world showed both our common human heritage and the differing perspective of each artist.

The exhibit was further enriched by being able to see North Korean Song Gwang Hong's portrait of an individual, on the wall beside American Artist Emmanuel Faure's collage of photographic portraits. New York artist, Nikki Schiro's sculpture embodied Asian understanding of personal peace.

*The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exhibit at Conrad Grebel University College had been up since July 12th, but the Exhibit Reception was planned for September 20th, when curator Heng-Gil Han would give an introductory lecture, and do a curator's tour of the exhibit for all who came. Several hours before the opening of the program, an art class from a local private high school that had many Asian international students came to the gallery for an advance tour of the exhibit. For over an hour, Heng-Gil had the rapt attention of a very diverse Asian/Canadian high school art class as he walked them through the exhibit. For most of the students, this exhibit was their first exposure to North Korean art outside of the propaganda "art" which is often portrayed in Western media. They were astounded to meet a Korean/American curator who could introduce them to authentic North Korean art, and bring their works together with that of South Korean and New York artists from a variety of ethnic backgrounds. The entire class requested their photograph be taken with Heng-Gil in front of the exhibit.

Korea has been in the news in the West since the Singapore Summit, and Canada has been playing a significant, but behind the scenes, role in encouraging interaction among Nor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 In January, Canada co-hosted with the US the Vancouver Foreign Ministers' Meeting on Security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 July, Canadians facilitated a visit by five researchers from the Academy of Agricultural Sciences in Pyongyang to attend a 5-day intensive course in agriculture at the University of Manitoba in Saskatchewan. In late September, Global Affairs Canada hosted a delegation from the DPRK Foreign Ministry in Ottawa for meetings with Canadian government officials and representatives from the Canadian NGO community.

The Grebel Gallery was packed for the Exhibit Reception. A quick survey of the audience revealed faculty and students from Conrad Grebel and the other colleges of the University of Waterloo, the Korean community of Waterloo and other interested persons in southern Ontario. After a welcome by the director of the Grebel Gallery, Heng-Gil Han gave an overview of the work of the Korea Art Forum, and his vision of the power of art to build peace through helping people transcend their national and cultural identities and begin to understand each other and our common humanity. He described the stereotypes of North Korean art with which he had grown up, and the ways in which the art that he has selected refutes those stereotypes. He described the years of work and relationships that went into bringing together A New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exhibit. After the opening remarks, Heng-Gil Han gave a gallery tour for the audience, describing each work of art, the artist who had created it, the reason it was selected and the relationship of that piece to the other art in the exhibit.

Among the audience, I was particularly struck by the fact that a counselor from the South Korean Consulate in Toronto, over 100 km to the east, had come to Waterloo to attend the reception. He introduced himself and thanked me for my help in facilitating the exhibit. He then informed me the upcoming visit of the North Korean Foreign Ministry delegation to Ottawa, and asked me if the

NGO that I represented would participate in the meeting with the Canadian NGO community. I was struck. Here was a South Korean Counselor trying to assure that there would be good representation from the Canadian NGO community for a meeting with North Korean diplomats. Could it be that our reception was already implementing the exhibit theme — *freely interacting with others across borders seeking to understand their values and perspective, while striving for justice and truth?*



전시가 개최된 대청도 구 면사무소

The former Daecheong Myon office where the exhibition took place.



전시 설치 모습

An installation view of the exhibition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전시 모습들  
Installation views of the exhibition at Incheon Culture & Art Center

## 소전시실



11



전시장 입구

Entrance to the exhibition



## II. 전시/공유 Exhibition/ Share

## 전시 출품 작가

- 공동작업 (알렉산더 라울, 이자운, 김룡, 김명운, 홍성광, 양센)  
a. 알렉산더 라울 (미합중국) Pg. 30  
b. 이자운 (대한민국) Pg. 32  
c. 김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36  
d. 김명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40  
e. 홍성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44  
f. 양센 (중화민국) Pg. 48
- 김현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68
- 리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80
- 리선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82
- 모리스 로버트 (미합중국) Pg. 76
- 서용선 (대한민국) Pg. 88
- 쉬로 니키 (미합중국) Pg. 84
- 신태수 (대한민국) Pg. 86
- 오성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78
- 이가경 (대한민국) Pg. 70
- 이자운 (대한민국) Pg. 74
- 주태석 (대한민국) Pg. 66
- 최창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54
- 카레이로 조엘 (미합중국) Pg. 52
- 파우레 엠마누엘 (프랑스공화국/미합중국) Pg. 58
- 한경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60
- 홍성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Pg. 64
- 무명작가 포스터 Pg. 90

## Artists Contributing Work to the Exhibition

- Collective Work (Rahul ALEXANDER, Zaun Lee, Ryong KIM, Myong Un KIM, Song Gwang HONG, Shen YANG)  
a. Rahul ALEXANDER (USA) Pg. 30  
b. LEE Zaun (ROK/USA) Pg. 32  
c. KIM Ryong (DPRK) Pg. 36  
d. KIM Myong Un (DPRK) Pg. 40  
e. HONG Song Gwang (DPRK) Pg. 44  
f. YANG Shen (PRC) Pg. 48
- Joel CARREIRO (USA) Pg. 52
- CHOI Chang Ho (DPRK) Pg. 54
- Emmanuel FAURE (FR/USA) Pg. 58
- HAN Kyung Bo (DPRK) Pg. 60
- HONG Song Gwang (DPRK) Pg. 64
- JU Tae Seok (ROK) Pg. 66
- KIM Hyun Il (DPRK) Pg. 68
- LEE Kakyoung (ROK/USA) Pg. 70
- LEE Zaun (ROK/USA) Pg. 74
- Robert MORRIS (USA) Pg. 76
- OH Sung Il (DPRK) Pg. 78
- RI Kwang (DPRK) Pg. 80
- RI Seon Myong (DPRK) Pg. 82
- Nikki SCHIRO (USA) Pg. 84
- SHIN Tae Soo (ROK) Pg. 86
- SUH Yongsun (ROK) Pg. 88
- A poster by an anonymous artist Pg. 90

## 공동작업

### (김룡, 김명운, 알렉산더 라울, 양센, 이자운, 홍성광)

뉴욕에서 활동하는 전시감독 한행길은 2017년 여름에 북한 화가 3인, 김룡, 김명운, 홍성광을 북경으로 13일 간 초대했고, 중국 화가 양센을 뉴욕으로 3주 간 초대했다. 한 감독의 요청에 따라 작가들은 방문 도시의 풍경과 미술관 등 문화 경관을 촬영했다. 한 감독은 또한 런던과 아테네에 1달 간 여행 가는 한국계 미국작가 이자운에게 동일한 과제를 요청했다. 5명의 작가들은 각자가 여행하는 도시에서 건축, 도시 풍경, 미술작품을 소재로 각기 1,000장 이상의 사진을 촬영했다.

뉴욕의 웨디자이너이자 예술가인 라울 알렉산더는 총 5,000 장 이상의 사진 중에서 셀스크립트를 이용하여 작가 당 250개의 이미지를 임의로 걸러내고 다시 컴퓨터 앱을 사용하여 그 250개의 이미지를 임의의 순서대로 병렬하여 격자형식으로 연결시켰다. 이렇게 각 작가들의 창조적 감수성을 보여주는 5개의 판넬이 제작되었다. 그런다음 알렉산더는 6번째 판넬을 제작했는데, 그 판넬은 모든 작가들의 사진을 혼합한 것이었다.

250 개의 이미지로 구성된 그룹사진 판넬 외에, 한과 알렉산더는 각 작가들을 대표하는 사진이 작가당 하나씩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한은 북한작가들의 사진들을 검토하여 작가당 한 개의 이미지를 선정했다. 양센과 이자운은 그들의 대표적인 이미지들을 스스로 선정했다. 이 개별적인 사진은 각기 16 x 20 인치 크기로 출력되었다.

이 공동 작품의 의도는 사진 매체가 본질적으로 사진촬영가의 관심을 드러낸다는 점을 이용하여 갈등 지역 출신의 작가들이 동일하거나 혹은 비슷한 대상을 놓고 갖는 관심의 초점이 어떻게 같고 다른가를 제시하는 것이었다. <상품과 이념> 사진 작품은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주민들이 갖는 관심의 초점이 같은 점과 다른 점을 확인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이행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 프로젝트를 통하여 얻은 지식은 북한작가들은 어린이들과 가족, 미술 기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중국 작가는 식민주의와 제국주의가 중국에 미친 악영향에 관심을 보였고, 한국계 미국 작가는 상품의 광고와 아테네 고대 건축의 디자인에 관심을 보였다는 차이점이다. 또한 색상에 대한 감각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북한작가들의 사진에는 붉은 색이 많았고, 중국

작가의 사진에는 금색이 많았으며, 한국계 미국 작가의 사진들은 코발트 색이 지배적이었다. <상품과 이념> 작품 전시는 위와 같은 발견들을 인천시민과 공유하고 남북 공감대 형성에 시민의 관심을 견인하고자하는 의도를 품고 있다.



<상품과 이념>, 2017. 컬러 프린트; 143.51 x 469.9 cm  
[5 판넬, 각: 143.51 x 93.98 cm]

## Collective Work

### (Rahul ALEXANDER, Myong Un KIM, Ryong KIM, Zaun LEE, Song Gwang HONG, Shen YANG)

In the summer of 2017, Heng-Gil Han, a curator based in New York invited three North Korean artists — Hong Song Gwang, Kim Myong Un, and Kim Ryong — to Beijing, China, for 13 days. He also invited Shen Yang, a Chinese artist based in Beijing, to New York for three weeks. Upon Han's request, these artists took pictures of urban and cultural landscapes while travelling. In addition, Han asked Zaun Lee, who is a Korean American artist based in New York who was travelling to London and Athens, to do the same. Each artist took pictures of architecture, parks, and artworks, producing more than 1,000 pictures of urban and cultural landscape in these metropolitan cities.

Upon receiving a collection of more than 5,000 images from all artists, Rahul Alexander, who is a New-York-based artist and designer, filtered 250 images from each artist by using a shell script that randomly selects images from a pool of pictures. He then put the pictures together in a grid structure, creating an image panel for each artist. In this way, five large panels representing the creative sensibility of each artist were produced. Alexander also produced a sixth panel that randomly mixes images from all five artists.

In addition to the groups of 250 pictures, Han and Alexander decided that each artist should be represented by a single image. Han went through all the images by the North Korean artists and chose one representative image for each artist. Shen Yang and Zaun Lee chose their representative images on their own. These individual pictures were printed at a size of 16 x 20 inches.

The objective of this collective work is to show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mong artists, who are from regions in conflict, in their points of view and

interests with regards to similar or the same objects by using photographs that show the focus of the photographer. Commodity & Ideology is an output of a project based on the idea that for peace building and conflict resolution,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common and different focal points of interest between people local to the regions of conflict.

What we learned through this project is that North Korean artists showed an interest in children and families, as well as artistic skills and technique. The Chinese artist cast a critical eye on elements of colonialism and imperialism historically damaging to China, while the Korean American artist was drawn to advertisements and the design of ancient architecture in Athens. There also was a difference of color sensibility. One often finds red in photographs of North Korean artists, and gold in photographs by the Chinese artist. Blue dominates the Korean American artist's photographs. Commodity & Ideology shares these differences with Incheon citizens to bring the need of building common shared interest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 their attention.



Commodity & Ideology, 2017. C-print; 143.51 x 469.9 cm  
[5 panels, each: 143.51 x 93.98 cm]



## 라울 알렉산더 (미합중국)

라울 알렉산더는 신매체와 테크놀로지를 이용하는 예술가이자 디자이너이다. 알렉산더는 터프트 대학에서 미술학과를 수여했고, 프랫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브롱스 미술관 <시장의 예술가> 프로그램을 졸업했고 공동작업을 통하여 많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제작했다. 그는 파슨스와 프랫에서 인터그레이티드 디자인을 가르쳤다.

## Rahul ALEXANDER (USA)

Rahul Alexander is an artist and designer who works with new media and technologies. Alexander received his BFA from Tufts University, his MFA from Pratt Institute, and is a fellow of the Artist in the Marketplace Program at the Bronx Museum of Art. He has collaborated on numerous public art projects and has taught integrated design at Parsons and Pratt Institute.



<상품과 이념> (혼합파넬), 2017. 컬러 프린트; 143.51 x 93.98 cm  
Commodity & Ideology (Mixed panel), 2017. C-print; 143.51 x 93.98 cm

## 이자운 (대한민국생. 미국에서 거주 및 활동)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자운은 회화, 판화, 콜라지, 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사용하는 미술가이다. 최근 <레고-구름> 시리즈에서 작가는 임의적인 공식을 통하여 레고 모양으로 도려낸 형상을 구성한다. 인식론과 언어학을 시각적으로 구사하면서 작가는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논리와, 생각, 인위적으로 구조된 요소들을 통해서만 지각하는지를 반영한다. 최종적인 화면 구성은 고전적인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비트맵 구름 같은 형상을 모방한다. 그 결과 작가의 화면은 건축, 도시풍경, 지형 위상학 등을 연상시킨다.

이자운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수학했고, 알프레드 대학에서 철학과를 쿰라우데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의 최근 전시는 뉴욕 유엔교회센터, 뉴욕 크로싱 컬렉티브 갤러리, 서울 숨도예술공간, 베를린 라이트 하우스 갤러리 등에서 발표되었다. 그의 전시는 뉴욕타임즈, 블록클린 레일, 아트 크리티컬 등에서 비평을 받았다.

### Zaun LEE (b. ROK. Lives and works in USA)

Zaun Lee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working in painting, printmaking, collage, and installation, based in New York City. In her recent Lego-Cloud series, she composes cutouts of Lego drawings by arbitrary formulas. Visually playing epistemology and linguistics, her process mirrors how humans can only perceive through layers of logic, thought, and constructed elements, which are imperfect and incomplete. The final compositions emulate formations of the bitmap clouds in classic video games, connoting architecture, cityscape, and topology.

LEE studied at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Cum Laude in Philosophy from Alfred University. Her recent exhibitions include The Church Center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rossing Collective Gallery of New York; Soomdo Art Space, Seoul, Korea; and Lite-Haus Galerie, Berlin, Germany. They have been also featured in The New York Times, The Brooklyn Rail, Art Critical, and others.



<아테네에서>, 2017. 컬러 프린트; 50.8 x 40.64 cm  
Athens, 2017, C-print; 50.8 x 40.64 cm



## 김룡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7년 평양 생. 1998년 평양미술대학 졸업. 조선화창작가.

김룡의 작품은 조선화의 전통적기법과 현대성이 잘 결합된 깊이있는 색채형상, 진실하고 정서적인 감정으로 일관되어 있는것이 특징이다. 김룡은 국가전람회들에 수차례 입선하였으며 여러 작품들이 국가소장품으로 보존되어있다. 그의 대표작은 <보위자들>, <결승선으로>, <련광정의 겨울> 등이 있다.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나가 전시회와 대외창작활동을 진행하였다.

### KIM Ryo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orn in Pyongyang in 1967. Graduated from the Pyongyang Fine Arts University in 1998. Merited Korean Painting Artist.

The main characteristic of Kim Ryong's work is the deep color sensation combined with the traditional and modern drawing techniques, as well as the realistic and emotional representation. Kim has been accepted in several National Exhibitions, and several works were registered as the Articles of the State. His famous works are The Defenders, From the Finish Line, Ryongwangjong in Winter. He visited many foreign countries like China to take part in International Exhibitions.



다음장 next page

<혁명가들>, 2017. 컬러 프린트; 40.64 x 50.8 cm  
Revolutionaries, 2017. C-print; 40.64 x 50.8 cm



## 김명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59년 강원도 생. 1981년 평양미술대학 졸업. 유화창작가이며 김정일상계관인, 인민예술가.

창작생활 기간 수많은 인물주제화와 풍경화들을 창작하여 국가미술전람회와 중국, 러시아, 독일 오스트랄리아 등 국제 전람회에 출품하였으며 20여점의 국가소장품과 상장, 금메달 8개, 동메달 7개를 받은 재능있는 화가이다.

활달한 필치로 대자연을 그리기를 좋아하며 색조는 따뜻하며 화색조로 화면을 통일시켜 공간색을 잘 내여 작품의 무게와 깊이, 힘있는것으로 조형성이 강한것으로 특기로 알려져있다. 또한 예리한 관찰력과 화면처리를 크게 보는 안목이 강하다.

기법은 전형적인 불투명기법이다. 대표작으로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 <강원땅의 새력사>, <대연지승에서 바라본 백두산>, <장군봉>, <백두밀림>, <6월의 백두산>, <10월의 백두산>, <독도는 우리의 땅> 등을 들수 있다.

### KIM Myong Un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orn in Gangwon Province, 1960. Graduated from the Pyongyang Fine Arts University in 1981. People's Artist.

An oil painter, Kim is a laureate of Kim Jong Il Prize. He painted a number of the works themed with the characters and landscapes and presented them to the national fine arts exhibitions and other international exhibitions held in China, Russia, Germany, Australia and etc.

He is also a talented artist who kept his 20 Works under the National Possession together with the relevant letters of prize and won 8 gold and 7 bronze medals. He likes to use a vigorous brush to paint a grandiose nature. His tone of color is warm-hearted and the painting is combined with the grey-like color, giving the unique background, and thus his works are characterized and well-known with profound weightiness and depth, telling touch and strong formative representation.



He has also a keen eye on the objects and frames up the picture in a big way. His technique is a typical impasto one. His highly praised Works are Mt. Paekdu - The Sacred Mountain of Revolution, New History of Kangwon Area, Mt. Paekdu Viewed from Taeyonjigong, Peak Janggun, Paekdu Forest, Mt. Paekdu Both in June and October, and Islet Dokdo is Ours.

다음 장 next page:

<시장 광장> 2017. 컬러 프린트; 40.64 x 50.8 cm  
Market Place, 2017. C-print; 40.64 x 50.8 cm



王府井百货

王府井

东安市场

## 홍성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60년 평양 생. 1993년 평양미술대학 졸업. 조선화창작가이며 공훈예술가.

홍성광은 민족적향취가 강하고 활력있는 필치가 넘치는 조선화작품으로 하여 유명하고 그의 작품은 시대의 맥박을 대변하며 새로운 구성내용과 진실한 형상으로 하여 특출하다. 그의 작품 7점이 국가미술전람회에서 금메달을 받았으며 17점의 작품이 국가소장품으로 등록되었다. 국가미술전람회에 출품한 그의 대표작은 <수령님과 농민>, <신념>, <소택지에서의 감정>, <겨울의 칠성문> 이다. 그는 중국에서 열린 여러차례의 국제예술박람회들에서 2개의 금상과 1개의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일본에서 열린 <코리아통일전시회>, 서울에서 열린 <통일전람회>에 훌륭한 미술작품들을 출품하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의 대표작들은 조선화 <조국을 위하여>, <애국렬사 안중근>, <우리 민족끼리>, <개성의 옛거리>, <널뛰기> 및 <통일연>들이다.

### **HONG Song Gwa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Born in Pyongyang 1960. Graduated from the Pyongyang Fine Arts University in 1993. Merited Korean Painting Artist.

Hong Song Gwang is well known for his Korean paintings full of national flavor and strong and vivid brush stroke. His works represent the pulse of the times and are distinctive with fresh composition and true depiction. He won 7 gold medals and 17 works have been registered as the national treasure in the national fine art shows, and his paintings are highly appreciated.

He was awarded with 2 gold prizes and 1 top-honor prize at the International Art Fairs held in Beijing, China and brought high-profile pictures on display at the Korea Reunification Art Exhibition held in Japan and the Reunification Art Show held in Seoul, attracting many visitors. His famous works are the Korean Paintings For the Fatherland, The Martyr An Jung Gun, Uriminzokkiri, The Old Street in Kaesong, Seesaw and Reunification Kite.



다음장 next page  
<(북경 중국국립미술관에 소장된) 아이를 그리는 아이의 사진의 사진>, 2017. 컬러 프린트; 40.64 x 50.8 cm  
A Photograph of a Photograph of a Child drawing a Child  
(at the National Museum of China, Beijing), 2017. C-print; 40.64 x 50.8 cm



## 양센 (중화인민공화국)

양센은 1973년 중국 북경에서 태어났고 1996년 중앙아카데미에서 미술학사를 수여받았다.

작가는 2008년 개인전 <고통의 느낌이 없는 세계>를 북경에서 발표했다. 그는 2016년 제3회 난징 국제아트 페스티벌 <희귀성과 공급>; 2009년 북경에서 <녹색> 그룹전; 2006년 이테리와 프랑스에서 <마이마오> 그룹전에 참가했다. 2012년 중국 상해에서 양센은 존 모어 회화상을 수상했다.

양센의 작업은 작가로서의 개인적인 특징과 중국 오늘의 시대상을 날카롭게 제시한다. 그의 화면은 상상과 열정으로 충만해 있다. 풍경과 인물화 가려지지 않은 감정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는 전통적인 유화기법을 형식화 된 만화 기법과 접목한다. 그의 작업은 현실 세계를 의미하고 그의 꿈과 기억 속에 있는 사회적 삶의 기록이다.

### Shen YANG (PRC)

Born in Beijing, China, 1973. Earned B. F. A. from Central Academy of Fine Art in 1996.

Shen Yang presented a solo exhibition, The World Without Feeling of Pain in Beijing in 2008. He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Scarcity & Supply, The 3rd Nanjing International Art Festival in 2016; Green in Beijing in 2009; Maimao in Italy and France in 2006. He was awarded John Moore painting prize in Shanghai, China in 2012.

Shen Yang's works sharply show personal marks of the artist and characteristics of the time in China. His paintings are full of imagination and passion. Both landscape and figure in his paintings evoke uncanny sense of feeling. He uses traditional oil painting techniques in combination with stylized cartoon techniques. His work implies the real world, and is a record of social life in his memories and dreams.



다음 장 next oage

<센츄럴 파크>, 2017. 컬러 프린트; 40.64 x 50.8 cm  
Central Park, 2017. C-print; 40.64 x 50.8 cm



## 카레이로 조엘 (미합중국)

조엘 카레이로는 열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전사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그는 유럽의 전통적인 화집 그림을 종이나 캔버스에 열을 이용하여 전사한다. 유럽의 그림을 잘라 그 이미지를 전사함으로써 작가는 유럽의 단일 시점 원근법 전통을 동시대 시각언어인 격자형 구조로 재해석한다. 후기근대주의의 어휘들을 (예를 들면 차용, 혼성모방, 짜집기) 사용하여 카레이로의 작업은 북한에서는 보기 힘든 작업 기법이고 그 점에서 미국 문화와 북한 문화의 차이를 제시한다. 그러나 카레이로가 중국과 북한 미술 작가들과 공유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문화정체성을 고심하고 찾는 노력이고 전통의 재생 혹은 현대화이다. 그로써 동시대미술의 큰 부분은 불확실성과 정체성의 질문과의 씨름하는 활동이라는 것이 재확인된다.

## Joel CARREIRO (USA)

Joel Carreiro employs a heat transfer technique to create his work. He takes printed images of European paintings and uses heat to transfer these images onto a sheet of paper or canvas. Dissecting the images, his work reinterprets Western traditions in contemporary terms of the grid structure. By employing postmodernist art-making strategies — such as appropriation, pastiche, and patchwork — Carreiro's work creates a quality of art that can be rarely seen in North Korea, presenting a difference between America and North Korea. However, Carreiro is similar to Chinese and North Korean artists in the search for his own cultural identity, confirming the view that a big part of contemporary art is to raise questions about uncertainty and identity.



<방문객>, 2015. 열로 전사한 이미지 콜라주; 38.35 x 49.53 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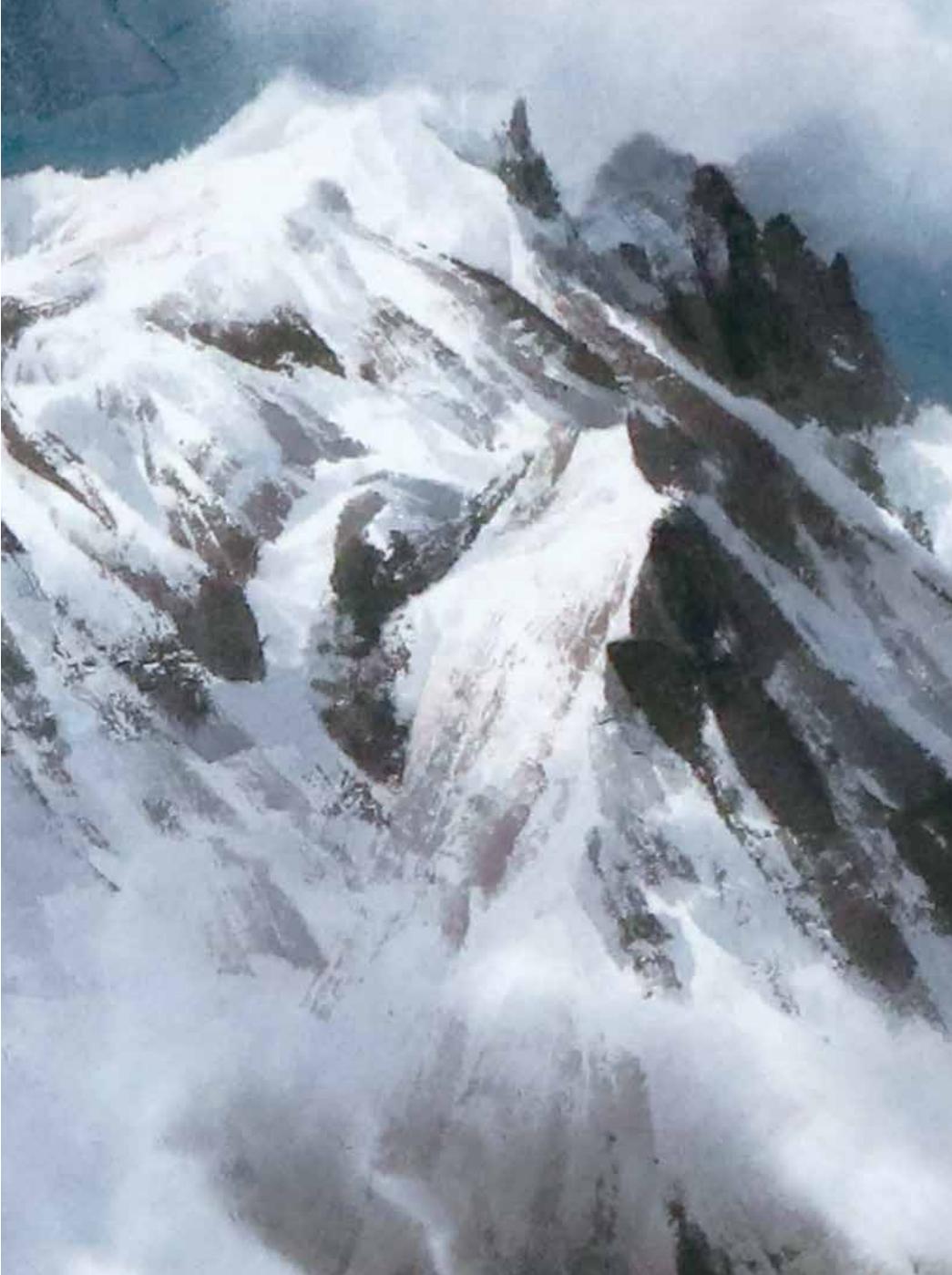
Visitor, 2015. Heat Transfer Collage; 38.35 x 49.53 cm

## 최창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창호는 1960년 온성 태생이고 평양에 있는 만수대창작사 조선화부 부장이다. 그는 형상의 외곽선을 그리지 않고 먹과 색, 농도로만 직접 형상을 구사하는 물골법의 거장으로 유명하다. 그의 역동적인 화면은 에너지로 가득차 있다. 이 시각적인 힘에 대하여 미국인들은 가끔 진정으로 예술적인 숭고함 보다는 기실은 허상인 장경의 창조로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기술이 뛰어난 그의 회화는 관객에게 경의의 감각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확실하다. 그 경의의 감각이 숭고하던 말던 상관없이.

### Chang Ho CHOI (DPRK)

Chang-ho Choi, born in Onseong, North Korea in 1960, is the Head of the Chosunhwado Studio at the Mansudae Creative Studio in Pyongyang. He is renowned for being a great master of “Mol Gol” technique in which figures are shaped immediately by the application of different colors and ink saturation without outlining the shapes before coloring. His dynamic paintings are full of energy. This has provoked occasional criticism from American viewers that his work is a spectacle instead of producing a feeling of the sublime. However, it is certain that his skilful painting produces a sense of awe whether or not this sense of awe is sublime.



우측 opposite

<백두산의 검은 봉> 2004. 조선화, 두루마리; 88.9 x 146.05 cm. (부분)  
Black Tip of Mt. Pektdu, 2004. Ink on paper; mounted on a scroll. (Detail)

다음장 Next page:

<백두산의 검은 봉> 2004. 조선화, 두루마리; 88.9 x 146.05 cm  
Black Tip of Mt. Pektdu, 2004. Ink on paper; mounted on a scro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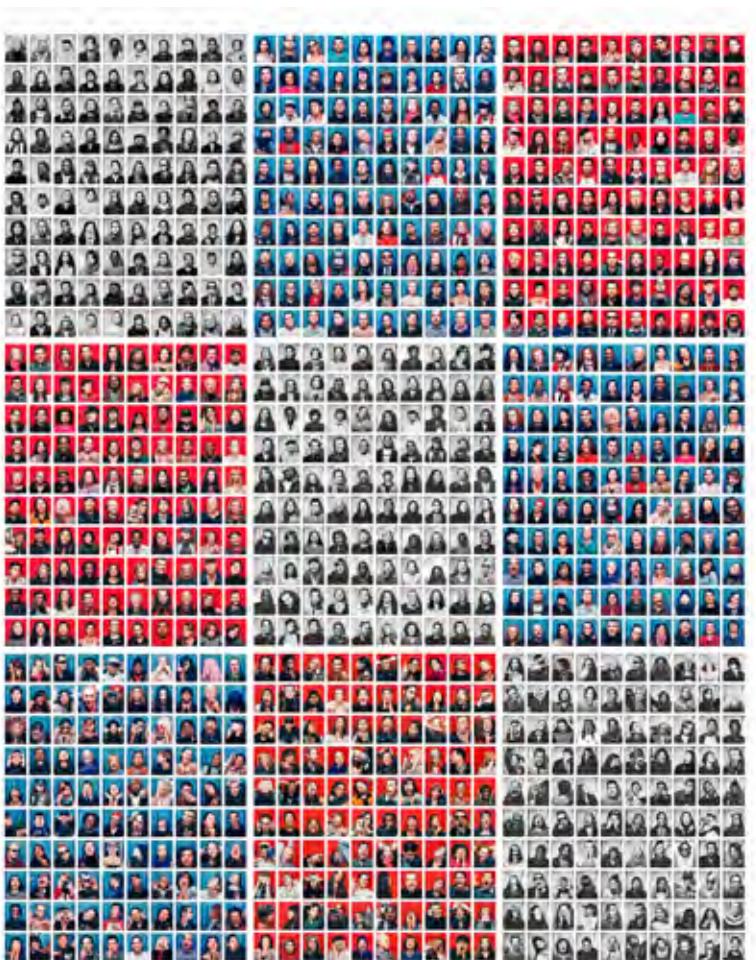


## 파우레 엠마누엘 (스페인/미합중국)

파우레는 속성사진 부스를 뉴욕 첼시에 있는 식당에 설치하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촬영할 것을 요청했다. 그런 다음 작가는 그들의 사진들을 모아 이 사진작업을 제작했다. 파우레의 다양한 사람들의 초상 작업은 홍성광의 개인의 존중을 재현하는 <티벳사람> 초상화와 대조적인 균형을, 즉 일자와 다자의 관계를 이룬다.

## Emmanuel FAURE (Spain/USA)

Faure set up a photo booth in a restaurant in Chelsea, NY. He asked people for taking their self-portraits. He then combined the self-portraits to make this photographic work. It excellently counterbalances to Hong's portrait painting, which depicts an individual Tibetan person, and will provoke the viewers to contemplate the relationship of "one and many" when placed alongside Hong's portrait.



<염색체 수집의 세 폭짜리 이미지의 3부작 (3부작의 제목: 나는 차고와 분홍색 네프킨, 레슬링을 싫어한다)> 2003.  
컬러 프린트; 127 x 101.6 cm  
Triptych Trilogy a Chromosomal Collection,  
(The triptych panel titles: Je n'aime pas les garages, Pink napkins, Lucha libre), 2003.  
Photographic print; 127 x 101.6 cm

## 한경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945년 평남 태생. 평양미대 교수로 활동. 속사 (연필 스케치) 화가로 유명. 조선화의 전통적인 외모를 흑연으로 구사하는 예술세계를 구축하여 연필화의 창조적 경지를 개척. 2천여점의 그림이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 속사집>이 6권으로 출간. 그외 총 15권에 달하는 소묘집, 연필화집 출판. 공훈예술가.

### HAN Kyung Bo (DPRK)

Born in South Pyongyang Province in 1945, Han Kyung Bo served as a professor at Pyongyang Fine Art University. He is known as the master of graphite art. He discovered ways of using graphite to make art that looks like a traditional ink painting, expanding the creative possibilities of graphite medium. About 2,000 works of his were published in *Battle Field of Revolution and Historical Places* that is composed of six volumes. A Merited Artist, Han published a total of 15 volumes about graphite art.



한경보 연필화 3점 전시 설치 모습  
installation view of Kyung Bo Han's work



<축전 참가자들의 문수강 안거리 시위행진> 1989. 종이에 흑연; 14 x 24.5 cm  
Festival Participants Rally for One Korea on the Riverside Road of Munsu-gang, 1989.

Pencil on paper; 14 x 24.5 cm

## 홍성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홍성광은 티벳을 여행하던 중에 이 초상화를 제작했다. 이 화면은 인류 전체와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인간애를 느끼게 한다. 평화를 건립하고 유지하는 근본적인 조건 중에 하나는 타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다. 이 평화조건의 메시지는 종이에 흡수되는 동양의 전통 먹을 재해석하는 화면에 깊게 배어있다.

### HONG Song Gwang (DPRK)

Song Gwang Hong traveled Tibet and made this portrait on his journey. The painting manifests a genuinely humane love toward others and the humanity in general. One of the fundamental conditions of building and maintaining peace is the acceptance of others as they are. This message extraordinarily permeates through the painting that reinterprets the Asian traditional ink medium.

<티벳 사람> 2012. 조선화; 113 x 87 cm  
Tibetan Person, 2012. Ink on paper; 113 x 87 cm



## 주태석 (대한민국 1955년 생)

주태석의 <자연/이미지>는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재현한다. 단순화된 나무와 가지, 또한 그것의 그림자는 현인의 외로운 삶을 암시한다. 예전에 하이퍼 리얼리즘 회화를 생산했던 작가는 지난 수십년간 서서히 그의 스타일을 변화시켰다. 그는 지금 자연적인 풍경의 색채와 세부들을 생략하고 평면화된 화면을 제작한다. 작가는 반복과 그 와중에 조금씩 변화하는 디테일의 시각언어를 철저히 검토한다.

이번 전시에 발표되는 작업의 소재는 두 개의 기둥으로 자란 나무이고 그 것의 중력 균형이다. 작가는 그 나무의 그림자를 통하여 패턴의 반복을 구사한다. 균형, 조화, 반성, 굴절 등이 이 그림이 지적하는 개념들이다. 상징적인 구성을 통하여 그 그림은 코리아의 분단이 현실에서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 분위기를 소통한다. 그럼으로써 그 분단을 제거할 필요성을 느끼는 집단의식을 상징적으로 가리킨다.

### JU Tae-Seok (b. 1955, lives and works in ROK)

Nature/Image by Tae-Seok Ju symbolically represents the relationship between humans and nature. Simplified forms of trees and branches, as well as the shadows they draw, allude to the lonely life of contemporary man. The artist, who used to create hyper-realistic canvases, has gradually changed his painting style over the last decade. He now produces a pictorial plane that is flattened by omitting the details and colors of a natural landscape. The artist seriously examines basic visual vocabularies of repetition and minuscule/gradual changes.

For the subject matter of this particular painting, the artist takes a tree that has grown into a couple of strong trunks to keep the balance of gravity. He then uses the shadow of the trunks to create a composition of repeating patterns. Balance and harmony, reflection and refraction are some of the ideas that the artist addresses in this painting. Through an emblematic composition, the painting communicates an atmosphere that suggests how the Korea division feels in reality, allusively pointing to the collective urge of Korean people for surmounting the division.



<자연 / 이미지>, 2016. 캔버스에 아크릴릭; 45.5 x 53 cm  
Nature/Image, 2016. Acrylic on canvas; 45.5 x 53 cm

김현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가 정보 미상



<백두산> 2014. 유화; 76 x 129.54 cm

Mt. Baektu, 2014. Oil on canvas; 76 x 129.54 cm

## 이가경 (대한민국 생. 미합중국 거주 및 활동)

몇년간 계속 하고 있는 <철책망 시리즈>는 판화와 비디오 설치, 애니메이션 시리즈 등 다양한 미디어로 구성되었다. 철책망 시리즈는 나의 고향에 있는 미군부대기지의 철책망 이미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최근의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정치적 갈등으로 불어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이 안보이는 그 철책망의 휘여지고 꼬여진 형태는 마치 라인 드로잉처럼 미적으로 아름답고 끊임없이 반복된다. 아이들이 재미있게 실놀이를 하면서 꼬인 실을 풀듯이, 꼬여진 철책망의 긴장을 평화롭게 푸는 방법이 있으리라 믿는다.

이가경은 홍익대와 동 대학원에서 판화를 전공한 후 뉴욕 주립대 퍼체이스 칼리지 대학원에서 스튜디오 아트를 공부했다. 국내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한 바 있으며 현재 한국과 뉴욕을 오가면서 판화, 비디오, 설치 작업을 주로 하고 있다. 메트로 폴리탄 미술관, 뮤지움 오브 모던 아트 (MOMA), 퀸스 미술관, 매사추세츠 현대 미술관 (MASS MOCA), 함부르크 현대 미술관, 브레멘 미술관 등 한국과 뉴욕, 독일에서 수십차례 개인전과 그룹전을 가졌다. 오마이 (Omi), ISCP, 뉴욕 자메이카 학예술센터, 메리월시 샵 파운데이션, 맥도웰, 야도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해왔으며, 미국 폴록 크레이스너상, 뉴욕 파운데이션 오브 더 아트 펠로우십, 뉴욕 알재단 작가상, 카파 작가상 (Korea Arts Foundation of America, LA), 아메리칸 아카데미상 등을 수상했다. 아시아 소사이어티,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국회의사당 도서관, 오하이오 클리블랜드 미술관, 텍사스 맥레이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다.

### Lee Kakyung (b. ROK. Lives and works in USA)

This Barbed Wire Series is a series of prints and multi-channel moving image installations. It is based on the shape of the barbed wire at the US army base in my hometown. Despite the growing threa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shapes of the tangled and distorted barbed wire are aesthetically repetitive and beautiful as abstract line drawings. And I hope there is a way to peacefully loosen the tangled tension as if it were like children playing cat's cradle.



<철책 망 시리즈 - 실놀이>, 2017, 비디오 설치: 회색 벽돌에 프로젝션, 애니메이션: 2분 반복, 칼라, 사운드  
Barbed Wire Series - Cat's Cradle, 2017. Video installation: projection on bricks, animation;  
2 min loop, color, sound.

Kakyung Lee (b. 1975, Korea) received her BFA and MFA from Hong-Ik University, as well as an MFA from SUNY-Purchase College, NY. She has exhibited in numerous exhibitions internationally, including at the Drawing Center, New York; Hofstra University, Hempstead; Kunsthalle Bremen, DE; Mass MOCA, North Adams;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Museum of Contemporary Art, Banja Luka, Bosnia; Museum Folkwang, Essen, DE; Museum of Modern Art, New York; Oqbo, Berlin, DE; Queens Museum, New York; and Seoul Arts Center, Korea. She has held residencies at Omi, ISCP, Jamaica Center for Arts and Learning, Marie Walsh Sharp Foundation, MacDowell Colony, and Yaddo. She has received the Pollock-Krasner Foundation grant, NYFA Fellowship, the Ahl Foundation grant, and KAFA award. She was the 2017 recipient of the American Academy of Arts and Letter Purchase Award. Lee's works are in the collections of Asia Society, New York; McNay Art Museum, TX;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Cleveland Museum of Art, Ohio; and Library of Congress, Washington D.C. among others.

다음 장 next page

<철책 망 시리즈 - '실놀이 그림자들'>, 2018. 아동용 스케치북을 자른 이미지에 플래시 비춤.  
Barbed Wire Series - Shadows of Cat's Cradle, 2018.  
Flashlight on cut-out figures using kids' sketchbook cover.



## 이자운 (대한민국 생. 미합중국 거주 및 활동)

뉴욕에서 활동하는 이자운은 회화, 판화, 콜라지, 설치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사용하는 미술가이다. 최근 <레고-구름> 시리즈에서 작가는 임의적인 공식을 통하여 레고 모양으로 도려낸 형상을 구성한다. 인식론과 언어학을 시각적으로 구사하면서 작가는 인간이 어떻게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한 논리와, 생각, 인위적으로 구조된 요소들을 통해서만 지각하는지를 반영한다. 최종적인 화면 구성은 고전적인 비디오 게임에서 볼 수 있는 비트맵 구름 같은 형상을 모방한다. 그 결과 작가의 화면은 건축, 도시풍경, 지형 위상학 등을 연상시킨다.

이자운은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수학했고, 알프레드 대학에서 철학과를 쿰라우데의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다. 그의 최근 전시는 뉴욕 유엔교회센터, 뉴욕 크로싱 컬렉티브 갤러리, 서울 숨도예술공간, 베를린 라이트 하우스 갤러리 등에서 발표되었다. 그의 전시는 뉴욕타임즈, 블록클린 레일, 아트 크리티컬 등에서 비평을 받았다.

### 작가 노트

나는 회화를 제작할 때 철학에서 배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나는 내 나름대로의 형식적인 언어법을 규정하고 회화 작업을 할 때 그 규칙에 따른다. 그 결과는 내가 나 스스로 내린 절제의 규칙에 따르면서 선택한 결정들을 기록하는 구성이다.

### Zaun LEE (b ROK. Lives and works in USA.)

Zaun Lee is an interdisciplinary artist, working in painting, printmaking, collage, and installation, based in New York City. In her recent Lego-Cloud series, she composes cutouts of Lego drawings by arbitrary formulas. Visually playing epistemology and linguistics, her process mirrors how humans can only perceive through layers of logic, thought, and constructed elements, which are imperfect and incomplete. The final compositions emulate formations of the bitmap clouds in classic video games, connoting architecture, cityscape, and topology.



무제한적인 3. 2009. 흑연, 잉크, 반투명 아크릴릭, 나무판넬; 101.6 x 50.8 cm  
Open Ended 3, 2009. Graphite and ink drawings of lego blocks on layers of translucent acrylic paints on wood panel; 101.6 x 50.8 cm

Lee studied at College of Fine Arts,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graduated Cum Laude in Philosophy from Alfred University. Her recent exhibitions include The Church Center of the United Nations, New York; Crossing Collective Gallery of New York; Soomdo Art Space, Seoul, Korea; and Lite-Haus Galerie, Berlin, Germany. They have been also featured in The New York Times, The Brooklyn Rail, Art Critical, and others.

### Artist Statement

I apply a logical methodology to the practice of painting, informed by my background in philosophy. I have defined a set of formal rules that I follow during my painting process when drawing Lego blocks. The resulting compositions record the choices I make as I follow my self-imposed set of restrictions.

## 로버트 모리스 (미합중국)

이번 프로젝트 전시 중에 생을 달리한 로버트 모리스(1931년 2월 9일 – 2018년 11월 28)는 미국 동시대미술의 대표적인 작가이자 가장 중요한 미술 이론가로 존경을 받는다. 그는 1960년 초 청년 조각가로서 미니멀리즘 이론의 기초를 닦았고, 1970년대에 과정 미술의 창시자로 인정된다. 그의 퍼포먼스 아트와 대지 예술, 설치 미술의 발전에 기여했다. 모리스는 뉴욕에서 거주하고 활동했다.

로버트 모리스는 한국전 참전 용사이다. 작가는 대지 공공예술 계획 드로잉을 이 전시에 기여했다. 그 드로잉은 거친 대지에 커다란 구멍이 있고 그 구멍에서 불이나 혹은 연기가 나는 것을 재현한다. 그 구멍은 “뜨거운 장소”를 시각화 한다. 청록색의 밀림이 그 구멍의 뒤에 있다. 관객은 구멍에서 벌어지는 위험에 그 숲이 안전하지 않다는 인상을 받는다. 모리스의 드로잉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가들의 백두산 회화들과 시각적인 대화를 나눈다.

### Robert MORRIS (USA)

Robert Morris (February 9, 1931 – November 28, 2018), who passed away during this exhibition on Daecheong Island, was an artist representing American art in the post-War period and is known as one of the most prominent art theorists. In the 1960s, as a young sculptor, Morris contributed to the theoretical discussions and foundation of minimalism. He is regarded as the progenitor of process art, which began in the 1970's. He also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performance art, earth art and installation art. Morris lived and worked in New York.

Robert Morris was a veteran of the Korean War. He contributed a drawing of land art to this exhibition, which represents a vision of a public art project. It shows a large artificial crater dug in an outdoor field. The crater fumes smoke or fire, visualizing the concept of a “hotspot.” There is a dense forest of evergreens behind the crater, and one imagines that the forest is not safe from the danger in the crater. The drawing engages in a visual dialog with the North Korean paintings of Chonji.



<메릴 린치 프로젝트>, 1985. 종이에 흑연; 96.5 x 127 cm  
Merril Lynch Project, 1985. Graphite on paper; 96.5 x 127 cm

오성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가 정보 미상

Sung Il OH (DPRK)

No artist information available.



<백두산 천지> 2004. 조선화, 두루마리; 45.72 x 129.54 cm  
Heaven Lake of Mt. Paektu, 2004. Ink on paper, mounted on a scroll; 45.72 x 129.54 cm

리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가 정보 미상

RI Kwang (DPRK)  
No artist information available.

<동해의 영웅 총석정> 2014. 조선화; 125.73 x 80.01 cm  
Chongseokjung, The Hero of the East Sea, 2014. Ink on paper; 125.73 x 80.01 cm



리선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작가 정보 미상

Seon Myong RI (DPRK)  
No artist information available.



<밀림>, 2016. 유화; 68.5 x 104.14 cm  
Forest, 2016. Oil on canvas; 68.5 x 104.14 cm

## 쉬로 니키 (미합중국)

니키 쉬로는 뉴욕에서 태어나고 활동하는 작가이다. 그의 미술 학업은 쿠퍼 유니언 컬리지의 토요미술학교 (1997), 헌터 컬리지 미술학사 (2002), 동대학 미술 석사 (2006) 등을 포함한다. 작가는 미국 내/외 갤러리와 미술관, 비영리 공간에서 역동적으로 작품을 발표했다. 2016년 11월 쉬로는 제3회 난징 국제예술 페스티벌에 외국 작가로 선정되었고, 같은해 1월에는 사천성에 있는 에메이 현대미술관에서 주최하는 제1회 국제비엔날레에 초청되어 작품을 발표했다. 쉬로는 2011년 북경 레드 게이트 갤러리 초청으로 입주 프로그램에 참가했고 2010년에는 청두의 하이랜드 레지던시에 초청 성공적으로 참여했다.

## Nikki SCHIRO (USA)

Nikki Schiro is a native New York artist. Her studies in art include an M.F.A. (2006) and B.F.A. (2002) from Hunter College, NY, as well as the Saturday Outreach Program (1997) at Cooper Union College for the Advancement of Fine Art. Schiro has exhibited extensively in galleries, museums, non-profit and alternative spaces, home and abroad. Schiro has been selected as a foreign exhibitor for the Third Nanjing International Arts Festival in November 2016, an exhibit that focuses on the effects of globalization. In January 2016 Schiro was one of two Americans selected to exhibit in the Inaugural International Invitational Biennale of Emei MOCA (LeShan, Sichuan Province). Schiro was invited to live and work for several months in China via the Red Gate Residency (Beijing, 2011) and Highland Residency (Chengdu, 2010), each latent with remarkable achievement.

<극기로 향한 길에서 얹힌 상태> 2017. 패스텔, 아크릴릭, 캔버스; 100 x 60 cm

Tangled on the Road to the Self Mastery, 2018. Acrylic and pastel on canvas; 100 x 60 cm



## 신태수 (대한민국)

1962년 경북 의성 태생. 안동대학교 미술대학, 영남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졸업. 30년 넘게 풍광 실경에 집중. 서해 5도를 답사하며 창작과 발표활동. 2012년부터 3년동안 백령도를 수차례 방문하여 최북단의 섬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 소통. 신태수의 백령도 풍경 수묵화 <두무진에서 장산곶>은 4.27 남북정상회담장에 설치되어 중요한 국가행사에 기여함. (출처: 경북 일보. 2018년 4월 27일)

### 작가 노트

겨울 한라산은 순백이다. 드러난 것은 검은 것이고 덮인 것은 하얀 눈이다. 흑백의 대비가 아름답다. 제주 한라산의 단순미와 송고미를 수묵으로 표현했다.



<한라설국>, 2012. 종이에 잉크; 36 x 210 cm

## SHIN Tae Soo (ROK)

Born in Eulseong, Gyeongbuk Province, in 1962, Tae Soo Shin earned a BFA degree from Andong University and a MFA degree from Yongnam University. For more than 30 years, Shin has produced landscape painting in 'real view', a Korean style of art that focuses on representing landscape the way it is seen. In recent years, Shin has explored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of South Korea, which are located near the border with North Korea. Since 2012 Shin has visited Baekryeong Island several times, and has included reflections on the specific historical and geographical nature of the northernmost island in his work.

### Artist Statement

Mt. Halla in winter is pure white. What is revealed is black. What is covered is white snow. The contrast of white and black is beautiful. The simplicity and the sublime of Mt. Halla on Jeju island is expressed by ink.

Mt. Halla in Snow, 2012. Ink on paper; 36 x 210 cm

## 서용선 (대한민국)

서용선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태어났으며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에서 학사 석사를 이수하였고, 1979년 그림을 시작한 이래 자신의 경험과 인지에 기초한 대중과 사회, 역사와 정치 등 다양한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최근 작가는 한국, 일본, 독일 호주 미국 등에서 개인전 및 다수의 그룹전을 개최하고 있다. (출처: 작가 홈페이지)

## SUH Yongsun (RO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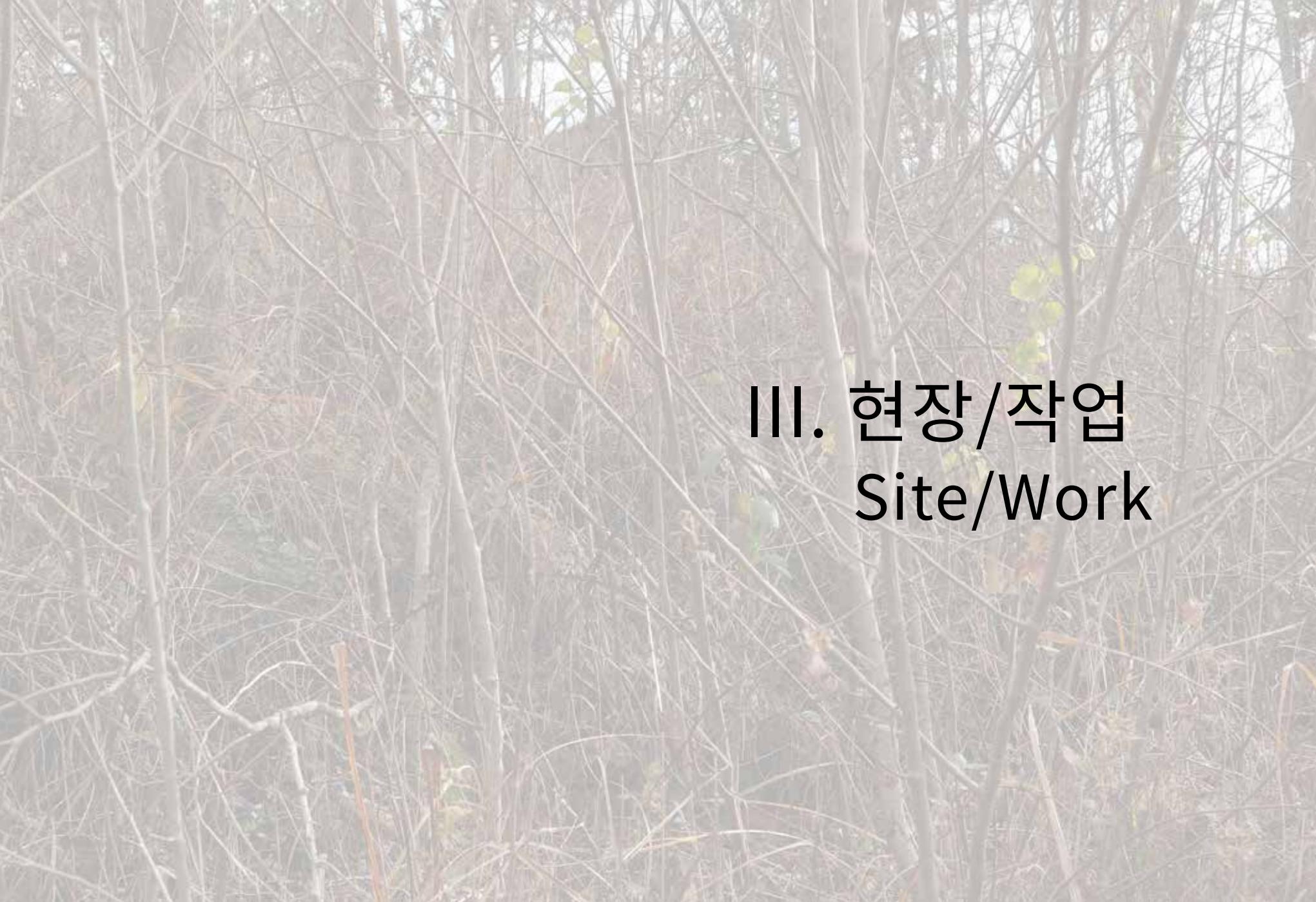
Suh Yongsun was born in Seoul in 1951. He studied painting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started his career as an artist in 1979. His works depict diverse issues, including history, politics, society and people, based on his own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Recently, his works have been exhibited in major cities in Korea, Japan, German, Australia and USA. (From the artist's homepage)



<2016년 12월 서울>, 2016, 2017. 린넨 위에 아크릴릭; 203 x 368.3 cm  
December 2016 in Seoul, 2016-2017. Acrylic on linen; 203 x 368.3 cm

동일령차 달린다!





### III. 현장/작업 Site/Work

## 서해 5도 현장 참여작가

그룰론 알리시아 (미합중국) pg. 96 - 99  
김태준 (대한민국/중화인민공화국) pg. 104 - 107  
박성준 (대한민국) pg. 112 - 119  
송율린 (중화인민공화국) pg. 128 - 131  
여경섭 (대한민국) pg. 148 - 161  
우가오종 (중화인민공화국) pg. 138 - 147  
유쥬쥬 (대한민국) pg. 132 - 137  
이정형 (대한민국) pg. 108 - 111  
전종철 (대한민국) pg. 100 - 103  
치이유치안 (중화인민공화국) pg. 122 - 127  
치이장 (중화인민공화국) pg. 120 - 121

## Artists Participating in Site Exploration of the Five West Sea Islands

Alicia GRULLON (USA) pg. 96 - 99  
Jongcheol JEON (ROK) pg. 100 - 103  
Tae-jun KIM (ROK/PRC) pg. 104 - 107  
Jeong Hyung LEE (ROK) pg. 108 - 111  
Seong Jun PARK (ROK) pg. 112 - 119  
Zhang QI (PRC) pg. 120 - 121  
Yutian QI (PRC) pg. 122 - 127  
Yulin SONG (PRC) pg. 128 - 131  
Juju U (ROK) pg. 132 - 137  
Gaozhong WU (PRC) pg. 138 - 147  
Kyoeng Sub YUE (ROK) pg. 148 - 161

## 그룰론 알리시아 (미합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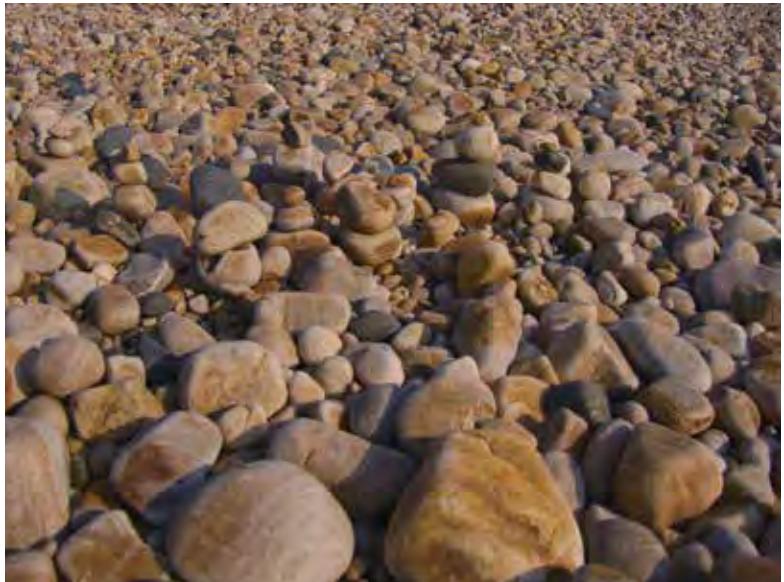
<우리가 믿는 그 모든 것들>은 사진, 비디오, 작가 노트로 구성된 개념적인 프로젝트로 내가 한국 서해에 있는 연평도와 대청도에 단기입주하면서 제작되었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은 트루먼 대통령의 미국의 한국전 개입을 지지하는 1950년 국정연설에서 인용한 것이다. 기후변동, 지구의 불안, 평화구축 과정을 조정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 기업들과 그 역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의 간격 등 여러 문제들의 한복판에서 나는 그 구절이 나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입주 기간 동안 줄곧 반성했다.

알리시아 그룰론은 뉴욕에서 활동하는 개념 작가이다. 그의 작업은 브루클린 미술관, 엘뮤제오델 바리오, 콜럼비아 대학교 미술관, 스쿨오브 비주얼 아트 미술관, 퍼포마 11, 크레아티브 타임, 브롱스 미술관 등지에서 발표된 바 있다.

### Alicia GRULLON (USA)

*All The Things We Believe In* is a conceptual project comprised of photographs, video, and notes created during my residency on Yeonpyeongdo and Deachongdo, South Korean islands in the West Sea (Yellow Sea). The title of this project is taken from the state of the union address by President Truman in 1950 supporting the US intervention in the Korean War. Throughout the residency I reflected on these words and what they meant to me amid climate change, global unrest, corporations controlling the peace processes and the distance between them and the people who have lived the history.

Alicia Grullon is a New York based conceptual artist. Her work has been presented at The Brooklyn Museum, El Museo del Barrio, Columbia University, School of Visual Arts, Performa 11, Creative Time, and The Bronx Museum of the Arts among others.



<평화의 돌>, 2018. 컬러 프린트; 가변크기  
Peace Rocks, 2018. C-print; dimensions variable.

다음 장 next page:

<소총 조정경 안착고리>, 2018. 컬러 프린트; 가변크기  
Rifle Scope Rings, 2018. C-print; dimensions variable.



## 전종철 (대한민국)

전종철은 1994년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 조형 미술대학에서 Aufbaustadium 졸업. 1988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했다. 전종철은 개인전 17회 및 기획 초대전을 통하여 설치 작품과 “미분화의 아우라” 사진 작품 등을 발표했다. 최근 독도 및 남북 통일에 관한 주제로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하늘이라는 무한대의 시공간 속에서 근원성적인 에너지를 내포하고 있는 구름 및 동영상 사진 작업에 천착하고 있다.

### 작가 노트

정치적 목적과 사고개념의 차이로 인한 경계선 사이의 녹슨 철책이 가로막고 있는 이미지 사진과 무한대의 열려있는 아름다운 수평선의 평화로운 심상의 이미지 사진을 통해 평화라는 근본성적인 메시지를 타전하고자 한다.

### JEON Jongcheol (ROK)

Jongcheol Jeon earned a master's degree in fine arts from Staatliche Akademie der Bildenden Künste, Stuttgart, in 1994. He also earned bachelor's and master's degrees in fine art from Gyeonbook University, and has actively presented his work in more than 17 solo and group exhibitions. Recently, he has been planning an ambitious project exploring Korean unification. Additionally, he documents images of the sky and has an interest in natural light.

### Artist Statement

I intend to communicate a message about the origin of peace. I use images evocative of a peaceful mind, a beautiful unlimited horizon, and images that confront, rusted barbed wire standing between borders because of different ways of thinking and poli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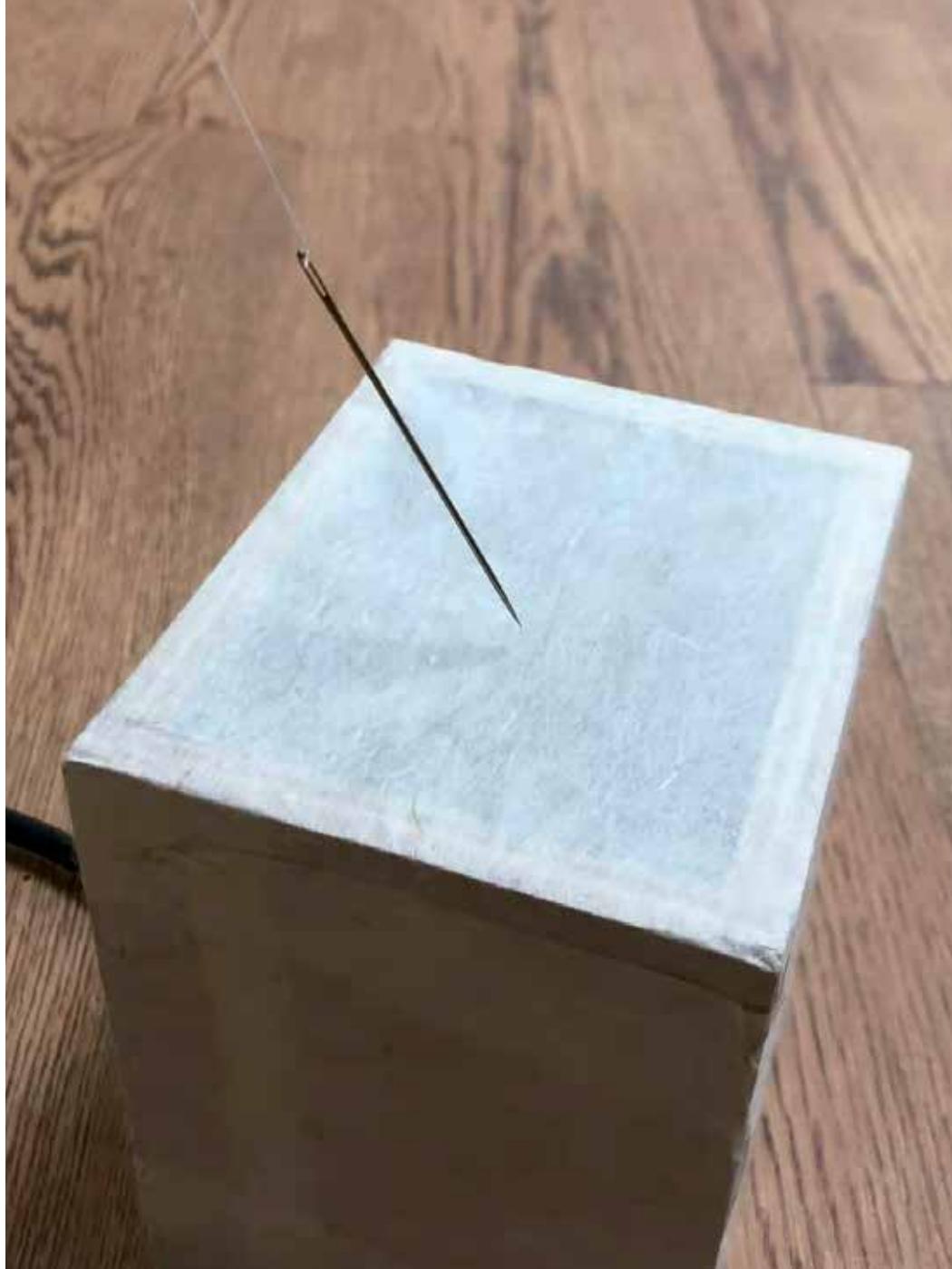


## 김태준 (대한민국 생. 중국 거주 및 활동)

김태준은 1995년에 독일 베를린 쿤스트 호흐슐레와 1999년 독일 카셀 쿤스트 호흐슐레를 졸업했다. 그는 현재 중국 충칭 시추안 미술 아카데미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작가는 인천아트플랫폼과 서호갤러리, 유네스코 A.poRT 등지에서 5회 이상의 개인전을 발표했고, 중국의 중경, 사천; 한국의 제주, 인천; 이태리의 로마; 우베키스탄의 제 8회 타시켄트 비엔날레 등 17회 이상 그룹전에 참가하였다.

## Tae-Jun KIM (b. ROK. Lives and works in PRC)

Kim studied fine arts at the Hochschule der Kuenste Berlin, Germany in 1995 and earned a Master's degree (Freie Kunst Meisterschueler von Professor E. Reusch) from Kunsthochschule Kassel, Germany in 1999. He presented solo exhibitions at Soohoh Gallery, Korea (2013); Unesco A.poRT, Incheon, Korea (2012); Incheon Art Platform, Incheon, Korea (2011) and other organizations. He has participated in group exhibitions at many institutions, including IAa Art Space, JeJudo, Korea (2018), the 8th Tashkent Biennale, Uzbekistan (2018), Trip of Time, Two Star Art Space, Chongqing, China (2017), the Contemporary Art Museum, Beijing, China (2017), Corsia delle Donne Museum, Rome, Italy (2017), and others.



<삶은 한개의 캡슐 안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다>, 2018. 자석, 나무박스, 바늘; 가변크기  
Life Is War In One Capsule, 2018. Magnets, wooden box, needle; dimensions variable.



## 이정형 (대한민국)

이정형은 1990년에 쿤스트 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마스터 슬러 학위를 수여했다. 그는 부산, 밀양, 뉴욕, 비엔나, 오사카, 동경 등지에 11회 이상의 개인전을 발표했다. 또한 뉴욕, 밀양, 부산, 서울, 인천, 하동, 중국의 린이시 등지에서 개최된 단체전 300회 이상 참여했다.

## LEE Jeong Hyung (ROK)

Lee Jeong Hyung earned a Master's degree (Freie Kunst Meisterschueler von Professor E. Reusch) from Kunstakademie Düsseldorf in 1990. He has presented more than 11 solo exhibitions in Busan, Milyang, New York, Osaka, Tokyo, Vienna and other cities around the world. He has also participated in more than 300 group exhibitions held in Busan, Incheon, Linyi, Milyang, New York, Seoul, and other cities.



<평화의 땅>, 2018. 현장에서 구한 흙; 120 x 100 cm  
An Earth of Peace, 2018. Soil taken from the given site; 120 x 100 cm



## 박성준 (대한민국)

박성준은 제네바 고등예술디자인학교에서 시각예술 학사와 석사를 수여했고,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에서 미디어 디자인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유럽공동체 교환학생 프로그램 수상자로 박성준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미술학사와 인터액션 디자인 석사를 취득했다. 작가는 2017년 서교예술실험센터, 2013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인전을 발표하고 2018년 서울 평화문화진지, 제주 아트페어, 파주 캠프그리브스, 광주 미디어 338 등 20회 이상 그룹전에 참여했다. 2018년 제주 이아 예술공간, 2017년 남원사운드아티스트, 2009년 하대리 예술지구 등의 레지던시에 선정되었다.

## PARK Seong Jun (ROK)

Seong Jun Park graduated Haute école d'art et de design-Genève (BA in visual arts); Haute école d'art et de design-Genève (MA in media design); and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MA in new media content/art). As an ERASMUS awardee, he earned BA in fine arts and MA in interaction design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He presented solo exhibitions at Seokyo Art Experiment Center, Seoul, in 2017 and Head, Geneva, Switzerland in 2013. He participated in more than 20 group exhibitions, including Korean Memorial at Culture Bunker, Seoul, in 2018; Jeju Arts Pair 'Artist and Yeogwan' Project, Dae-Dong Hotel, Jeju, in 2018; RE:MONTAGE, Media 338, Gwangju, in 2017, and others. Park is an alumni of residency programs such as Jeju IAa Residency in 2018, Namwon Sound Artist Residency in 2017; and Hadeari Art District Residency in 2009.



<월컴>, 2018. 싱글채널 비디오; 2' 10"  
WALLCOME, 2018. Single channel video; 2' 10"

# 박성준 작가와 한행길 예술감독의 서면 인터뷰, 2018년 12월 6일

한행길 (한): 비디오가 탄생하게된 과정이나 경위를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박성준 (박): 평소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 관한 관심이 많은 편인데 근래에 들어 자연환경으로 형성된 인간의 흔적들에 관해 호기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대청도의 아름다운 해변에서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대치하는 모습이 서린 하나의 간판 혹은 안내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안내문의 맥락과 기능을 인지하면서 매우 복잡한 심경을 가지게 되었고 동시에 그 심경만큼이나 강한 호기심으로 무엇에 이끌리듯 비디오를 담게 되었습니다.

한: 비디오에 활용된 소재들이 무엇인지요?

박: 자연, 인간, 이데올로기, 대립, 남과 북, 모순, 갈등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관객들이 작가의 비디오를 보고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리라고 기대하나요?

박: 남한사람으로서는 비디오에서 나오는 전화기를 들어 통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남북한이 실질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공간에서는 매우 위험한 생각으로 인식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전화기를 들어 통화한다는 것 역시도 쉽지 않은 과정과 결정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고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한편으로 누구에게 장난스런 행위가 다른 한편으로는 누구에게 운명적인 행위가 되기 때문에 매우 모순적인 모습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비디오에서 등장하는 인물의 손은 누구 것으로 지칭되지 않으나 우리는 그것을 남한 사람 혹은 북한 사람으로 것으로 상상하면서 사상과 이념 그리고 국가와 같은 절대적 대상이자 관념에 관한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이 비디오를 통해 우리에게 좀 풀리지 않는 숙제처럼 존재하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 관한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한: 현재의 비디오를 더 발전시킬 계획이 있는지, 혹은 대청도나 백령도를 다시 가서 더 연구할 생각이 있는지요? 그리고 (그 “있다” 혹은 “없다” 답에 대한) 이유는?

박: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육지를 통해 넘어가려면 많은 다른 제약이 따르고 눈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은 바다로 둘러 쌓여 있기 때문에 육지보다는 더 아슬아슬하게 남과 북에 경계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기 쉬울 뿐더러 바다를 통해 많은 쓰레기들이 흘러들어 오듯이 북한관련 오브제들을 가끔은 발견할 수 있을거란 기대도 해봅니다.

한: 만약 이 프로젝트가 작가의 예술관과 예술세계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었는지요?

박: 사람을 만나는 것에 따라 평소 작업의 방향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런면에서 도시와는 다른 환경 그리고 그곳에 실제 살고 사람들과의 만남은 매우 특별한 경험이 되어 실제적인 작업을 하는데 있어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 말할 수 있습니다.



## An E-mail interview between PARK Seong Jun and HAN Heng-Gil on Dec 6, 2018

HAN: Can you please briefly explain how your video was made?

PARK: I am mostly interested in spaces we live in. Recently, I became curious about human traces in natural environments. On an early morning I discovered a sign that clearly shows the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e beautiful beach on Daecheong Island. Recognizing the sign's function and contexts, I had very mixed feelings. As intense as my feelings were, I was led by a strong curiosity to take a video of the sign.

HAN: What did you film?

PARK: I would say nature, humans, ideology, confrontation, North and South, conflict, etc.

HAN: What do you anticipate your audience will get from your video?

PARK: For a South Korean, it feels very risky to think about lifting up the phone and trying to make a call [to find out whether or not the phone really works], in this space of confront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For a North Korean, it would be a really hard decision to pick up the phone and call.

A playful act for a person on one side is a fateful act for another person on the other side. These different sides can be seen as contradictory. The hand that appears in the video can be imagined as the hand of a South Korean or that of a North Korean. Imagining this makes us feel powerless before absolute entities such as the state, ideology, and ideals. Through this video, I intended to express the complex situation, a conundrum that is unlikely to be solved.

HAN: Do you have any plans to further develop the video? Or do you think about possibly going back to Daecheong or Baekryeong Islands to do additional research?

PARK: I think so. Because they are islands. If we try to cross the border on the peninsula, there will be many obstacles and fences. But because the islands are surrounded by sea, it is easier to experience th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an on land. I anticipate occasional discoveries of objects that have drifted over from North Korea; a lot of floating garbage comes to our coast by sea.

HAN: If the project helped you to expand your view of art or your art world, in what way did it?

PARK: The creative direction of an artist changes who the artist meets. The natural environment, different from a big city, and meeting people who live on the islands provided a special experience, and I have to say that the project has provided a time beneficial for making art.





대청도 현지 답사하면서 작가가 가장 아름답다고 느낀 장소에 군사시설물이 공존하는 위치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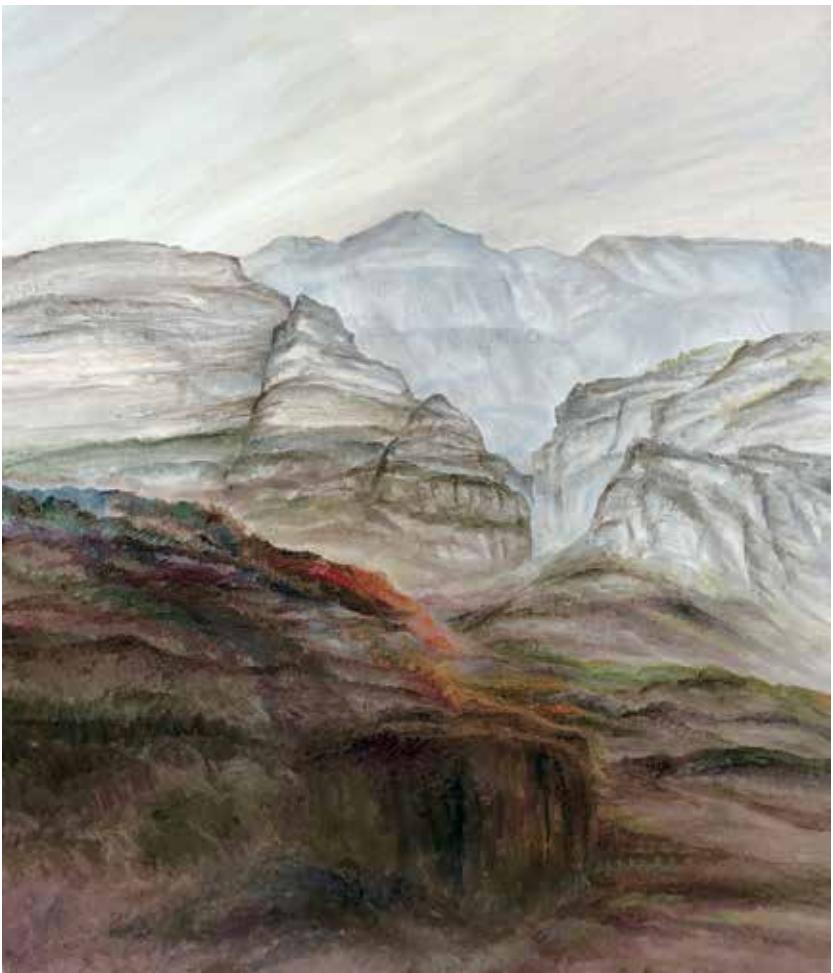
One of the locations that Park finds beautiful,  
and they are often occupied by military facilities.

## 치이장 (중화민국)

치이장은 1969년 강소성에서 태어났고 1992년 난징예술대학을 졸업한 여성예술가이다. 대학 졸업 후 작가는 창작과 편집에 종사했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이센팅의 필름기금 운영부장으로 활동하면서 독립영화의 소통과 발전에 헌신했다. 2015년부터 작가는 예술창작에 열중하고 작품을 발표했다. 2016년 북경 송장 10주년 특별전과 북경 지우쳉 갤러리 미니 아트페어에 참여하고, 2017년 산시성 제4회 실크로드 국제 아트 페스티벌에 참여했다.

## Zhang Qi (PRC)

Zhang Qi is a woman artist born in Jiangsu Province, 1969. She graduated from Nanjing University of the Arts in 1992, and has been engaged in editing and producing work since graduating from university. From 2011 – 2015, she served as Operations Director for Li Xianting's Film Fund, dedicated to the communication and development of independent films for the benefit of public audiences. Since 2015, she has actively making art. Qi participated in the Special Exhibition for the 10th Anniversary of Songzhuang Art Museum, Beijing, China, in 2016; Mini Art Fair, JIU CENG Gallery, Beijing, China in 2016; and China•HeShun Fourth XuCun International Art Festival, ShanXi, China, in 2017.



<산>, 2016. 유화; 60 x 70 cm  
Mountain, 2016. Oil; 60 x 70 cm

## 치이 유치안 (중화인민공화국)

2001년 사천 대학교 미술학교 졸업한 치이 유치안은 지난 20여년간 뉴욕과 북경에서 3회 이상의 개인전을 발표하고 중국,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 등지에서 45회 이상 단체전에 참가했다. 그는 2015년 “새로운 별,” 2007년 “첫 번째 풍경과 감성”상을 수상했다. 작가의 작품은 상하이 미술관 외 다수 공공기관 및 개인소장품으로 수집되어 있다.

## QI Yu Tian (PR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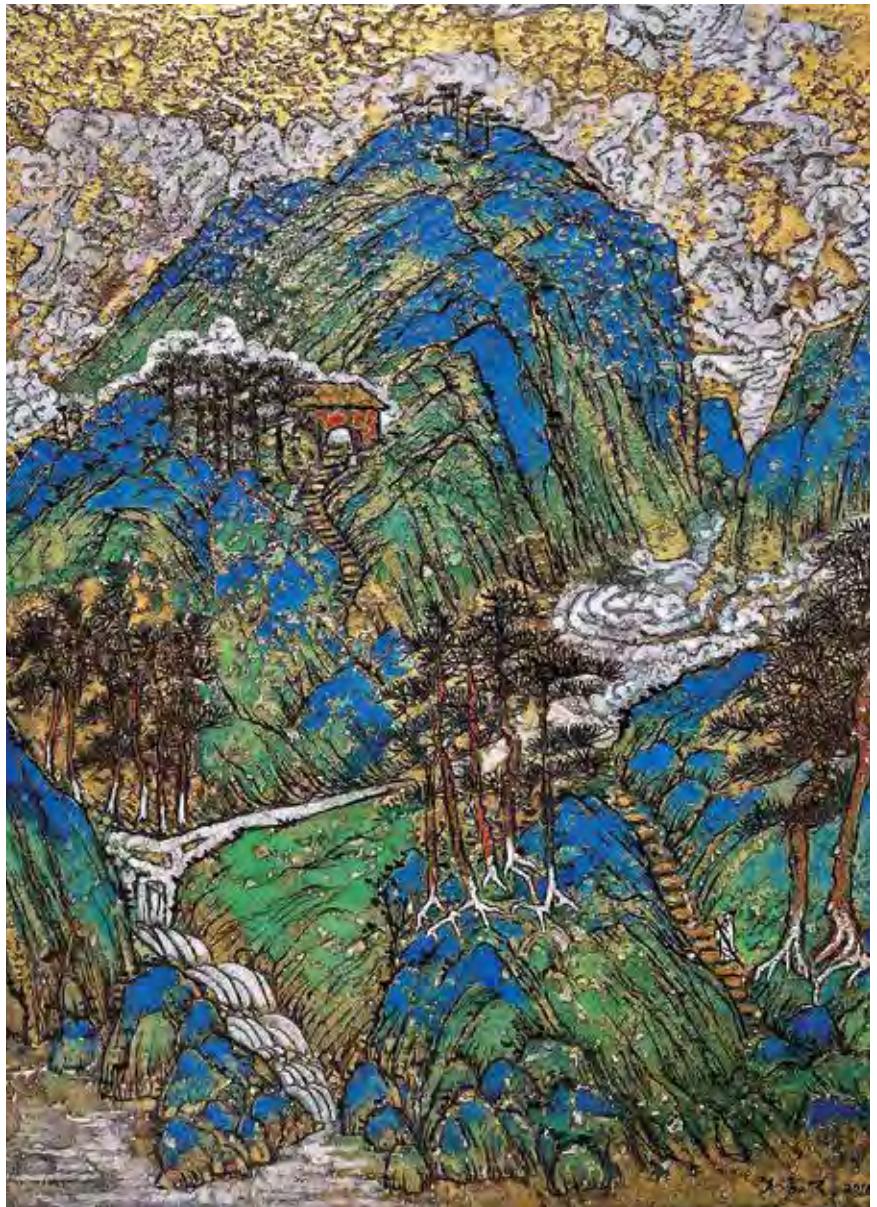
Qi Yu Tian graduated from the Institute of Fine Art, Sichuan University, in 2001. Over the last 20 years, he has presented more than 3 solo exhibitions in Beijing and New York. He has also participated in more than 45 group exhibitions held in China, France, Germany, Korea, and the US. He was awarded a New Star Prize in 2015, and received The First Landscapes & Feelings Exhibition Award in 2007. His work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s of Shanghai Art Museum, The 3 - Line Museum in Liuzhi district, Guizhou, and other private institutions.



우측 상단 opposite above  
<땅의 교체>, 2018. 磷; 25×7×7 cm  
Land Replacement, 2018. Soil; 25×7×7 cm

우측 하단과 다음장 opposite below and next page  
겨자 밭 387과 356, 2016. 합성재료, 보드; 60x40cm  
Mustard garden 387 & 356, 2016. Composite material on board; 60x40cm





《国土置换》

材料:泥土

尺寸:25×7×7cm

2018年11月,漆驭天从北京顺义家中挖了一块泥土,制作成一块泥砖,带到韩国DMZ区,大成多岛,参加美国策展人 韩杏吉先生的“和平时代展”。最后把这块砖埋在岛上的军事区,并选择了军事区的一块地基石,带回北京。



Land Replacement

Medium: Soil

Size: 25×7×7 cm

In November 2018, Qi Yutian dug a piece of earth at his home in Shunyi District, Beijing, and made a mud brick out of the soil from the pit. He brought the brick to Daecheong Island, South Korea, to participate in the exhibition “An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curated by American curator Heng-Gil Han. This brick was eventually buried in the military zone on the island, and in exchange, he chose a cornerstone at the military zone and brought it back to Beijing.



<땅의 교체>

매체: 흙

크기: 25×7×7 cm

2018년 11월 치이 유치안은 그의 집 북경 순이구에서 땅을 파고, 거기서 나온 흙으로 벽돌 하나를 제작했다. 작가는 그 벽돌을 대청도로 가져와 미국 큐레이터 한행길이 기획한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에 기여했다. 그 벽돌은 최종적으로 섬의 군사지역에 무더니. 그리고 그는 군사지역에서 버려진 귀돌 하나를 주어 북경으로 가져왔다.

## 송율린 (중화인민공화국)

송율린은 2002년 사천대학교 미술학교 졸업했다. 그는 뉴욕 오자누스 아트스페이스 (2016), 북경 닝 스페이스 (2014), 북경 조이 아트 갤러리 (2011) 등지에서 개인전을 발표했고 단체전 52회 이상 참여했다. 주요 단체전은 2015년 난징 국제예술전, 2016년 슈쥬 국제유화전, 2017년 제8회 뉴 스타 예술상 전시회 등이다. 그의 작품은 호주 화이트 레빗 수집, 구이저 성 류즈 제 3 선 미술관 외 다수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 SONG Yulin (PRC)

Song Yulin graduated from the Institute of Fine Art, Sichuan University, in 2002. She presented solo exhibitions at OZANEAUX Artspace, New York in 2016; Ning Space, Beijing, in 2014; and Joy Art Gallery, Beijing, in 2011. She was invited to notable group exhibitions, including The 8th New Star Art Award Exhibition in Nanjing (2017); Invitation for the first Shuozhou International Oil Painting Exhibition in Shuozhou (2016); Nanjing International Art Exhibition in Nanjing (2015), and others. Her work is included in the Australian White Rabbit Collection, the Third - Line Museum in Liuzhi district, Guizhou, and others.



<간격 “+”&“-”>, 2016. 캔버스에 아크릴; 두 폭 그림: 각 40×30 cm  
Gap “+”&“-”, 2016. Acrylic on canvas; diptych: 40×30 cm each



## 유쥬쥬 (대한민국)

유쥬쥬는 인천 태생 신진작가이다. 2006년 건국대학교 공예학과를 졸업하고 2013년 영국 골드스미스 칼리지 미술석사를 받았다. 유주주는 북한의 시나 선전 슬로건을 인용하는 텍스트 예술을 제작한다. 그는 OCI 미술관과 헤이리 논밭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발표했고 다수의 국제 단체전에 참가했다. 유쥬쥬는 2017년 아시안 컬츄럴 카운슬 입주작가상, 2016년 OCI Young Creatives, 2015년 후쿠오타 아시아 아트 뮤지엄 레진더시 등 다수의 수상경력을 가지고 있다.

## U Juju (ROK)

U Juju is an emerging artist born in Incheon. She earned a BFA degree in craft arts at Konkuk University and an MFA degree from Goldsmiths College, UK. U uses quotes from North Korean poems or propaganda slogans in her text-based art. U presented solo exhibitions at OCI museum, Nonbat Art Gallery at Heyri Art Valley, Paju, and participated in many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U is a fellowship grantee of the Asian Cultural Council, OCI Young Creatives, Hukota Asian Art Museum residency and others.

*<where to start>*, 2018. 연평도 앞바다에서 채집한 어망; 가변크기  
*where to start*, 2018. Found nets on the Yeonpyeong Island;  
dimensions variable



##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예... 서울서 왔습니다. 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는 짐을 풀고 탐사에 앞서 끼니를 위해 식당에 앉았다.

보자... 연평꽃계탕, 연평생굴, 연평무우국, 연평낙지육계장...

선생님 뭐 드시겠어요?

흰 쌀밥에 벌건 국물을 삼키고 벌건 반찬을 씹는다.

섬 바람 덕에 열었던 코가 따뜻한 곳에서 따뜻한 밥을 먹으니 훌짝훌짝 자꾸만 내려온다.

자알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섬 식당들의 계산대 옆에는 모두가 짜기라도 한 듯 믹스 커피.

고추가루, 파, 마늘내가 진동하는 입 안을 커피 한잔으로 게워내며 문을 열었다.

갑시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리는 걸었다. 작은 항구 앞 식당에서부터 섬의 깊숙한 곳으로.

뚝방길 짠내 진동하는 어망 무더기 산을 지나,

김장배추를 짐차 만큼이나 가득 쌓고 소금에 절이는 아주머니들을 지나,

주인은 섬의 어딘가 일터에 나가고 텅 비어버린 집들을 지나,

배추, 고추, 파, 무 김장재료 농작물 4종이 한데 자라나는 작은 텃밭을 지나,

수심마리의 까마귀가 까악까악 울어대는 언덕길을 지나,

얼룩덜룩 국방색 위장 벽화가 가득한 차고 각진 시멘트 무언가들을 지나,

정지

라이트 꺼

시동 꺼

운전자 하차

안보 상담소

이 지역은 군사작전 지역입니다. 군사작전 간 오인사격의 위험이 있으니 일을 이후 출입을 금합니다.

정지

를 지나,

해변에 도착했다.

좌우, 상하, 그 끝을 알 수 없는 해안.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바그닥 바그닥 돌 해변을 걷다가 앉아 어망을 바라본다.

얽히고 섞힌 알 수 없는 덩어리의 어망.

이것은 북의 것일까, 남의 것일까.

긴 한줄기를 시작으로 씨실과 날실이 교차되고 직조되어 수 많은 물고기를 낚아 올렸을 어망.

이제는 뜯겨져 나가 그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의 덩어리가 되었다.

풀어볼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풀고 더 풀어도 시작인지 끝인지 어느 한곳은 나올 기미를 보이지 않고 더 엉키기만 한다.

하, 꼭 뭐 같네.

뭐 같아.

얽힌 그물 덩어리들을 하나 둘 품에 안고 다시 일어선다.

보자... 여기가 어디 즈이 였더라...

유쥬쥬 2018년 12월

## Where to begin?

Hi, yes. I'm from Seoul. Yeah.

Where to begin?

We unpacked our luggage and sat at a restaurant to eat before venturing out to explore.

Let's see: Yeonpyeong blue crab stew, Yeonpyeong raw oyster, Yeonpyeong radish soup, Yeonpyeong spicy octopus & beef stew.

"What do you want to get?"

We ate white rice with red soup and red side dishes.

My nose, frozen by cold wind of the island, got runny as I was having a warm meal in a warm place.

“I’m done.” I enjoyed lunch very much.

All the restaurants on the island offered mixed coffee at the counter as if they had all agreed to do so.

I opened the door as I was drinking coffee to get rid of the aftertaste of chilli pepper, scallion, and garlic.

“Let’s go.”

Where to begin?

We walked and walked. From the restaurant in front of the small harbor to a place deep into the island.

Along the embankment road, passing by a mountain of nets that fumed a strong fish odor away into air,

Passing by women salting napa cabbage, which was piled up like on a freight truck, for the winter kimchi,

Passing by vacant houses, the owners gone, out somewhere on the island for work,

Passing by a small garden growing all four ingredients of kimjang kimchi, cabbage, scallion, garlic, and radish,

Hiking a high hill where dozens of crows cackled,

Passing by some rectangular cement structure fully covered with green and brown camouflage murals,

Stop.

Turn off the light.

Switch off the ignition.

Driver - Get off.

Security checkpoint.

This area is a military operation area. It is prohibited to enter after sunset because of live fire, you could be hit by mistake.

Passing by.

Stop.

Finally arrived at the beach.

Right and left, above and below, the coast whose ends were unknown.

Where to begin?

After walking on the coast covered with big and small pebbles, making noise; clattering, clattering,

Sitting and looking at nets,

Entangled, the nets made a riddling mass.

“Is this from the North, from the South?”

Beginning from a long single thread, woven by intersecting weft and warp, the net would have served to catch a lot of fish.

It was torn and it has now become a mass that doesn’t show the beginning or the end.

Shall I disentangle it?

Where to begin?

Untangle, untangle, but the end of the thread doesn’t seem to appear, The net gets more tangled than before.

Ha, it looks exactly like something.

Like what?

Standing up, carrying the nets in my bosom.

Look. Where is here?

U Juju Decmeber 2018

## 우가오종 (중화인민공화국)

우가오종은 1962년 장주에서 태어났다. 그는 난징미술아카데미를 1990년에 졸업했고 북경에서 거주하면 활동하고 있다. 우가오종의 경력은 1990년대 초에 시작한다. 그의 퍼포먼스 <5월 28일 태생>은 중국미술계에서 논쟁을 일으켰다. 그후 작가는 새로운 재료를 탐구했다. 개념사진으로 부터 설치, 회화 등에 이르기까지 물당과 털, 자르기 등의 미술언어를 통하여 우가오종은 그의 개인적인 기억과 일반 존재에 대한 감성에서 가장 심금을 울리는 부분에 대한 그의 감성적 반응을 관객에게 전달한다. 장경, 나약함, 얹힘, 위험, 따가움 등의 존재에 대한 감정들은 그의 작업에서 충만하게 표현된다. 우는 북경, 상해, 싱가포르 등지에서 국제적으로 개인전을 발표했고, 한국 전북미술관, 중국 북경미술관, 스위스 베른 미술관 등지에서 개최된 많은 단체전에 초대되었다.

## WU Gaozhong (PRC)

Wu Gaozhong was born in Changzhou, 1962. He graduated from Nanjing Academy of Fine Arts in 1990, and is working and living in Beijing. Wu's art career was started from the beginning of the 90s. His performance – Born on May 28th aroused a wave of criticism in art circles. Then he keeps trying new media materials. From concept photography to installation art to painting, Wu Gaozhong conveys new feelings of the most touchable parts in his personal memory and feelings of existence to viewers by using different art language like mold, hair and cutting. The feelings of existence which include spectral, fragile, tangled, dangerous, sting, and so on are expressed totally by his works. Wu internationally presented solo exhibitions in Singapore and Beijing, Nanjing, and Shanghai in China. He was invited to international group exhibitions presented at MOCA YINCHUN, China (2017); Jeonbuk Museum of Art in Korea (2015); Kunstmuseum, Bern, Switzerland (2005); Qingliangshan Park, Nanjing, Jiangsu, China (2000) and others.





## 우가오종 – <경계선>

작가: 우가오종

제목: <경계선>

형식: 포퍼먼스 + 설치

기간: 가변

장소: 대한민국 – 대청도

시기: 2018년 11월 26일

실행과정:

- 지역주민들의 물건을 작업의 일부로 수집한다. 그리고 퍼포먼스 실행 장소에서 그 장소에 있는 잔여 물건을 찾는다. 예를 들면 섬의 돌, 나무 가지, 빈 병들 등.
- 육체가 측정의 단위가 된다. 섬에서 땅에 엎드린 우가오종의 몸을 총 길이의 한 단위로 삼는다. 총 길이는 손을 펼친 작가 육체의 길이 70 배이다. “70”은 38선이 그려진 후 1948년 8월과 9월에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설립된 후 지나간 햇 수이다.
- 수집된 물건을 작가의 육체로 측정한 길이를 따라 놓는다. 그 물건들은 긴 선을 땅에 긋는다.

우가오종

2018년 11월 12일

## 살 덩이의 약속

### — <경계선> 작업에 대하여

<경계선>은 역사와 현실의 잔재이자 우리의 내적 필요성의 잔재이다. 영토의 경계는 역사적으로 도시국가 체제의 잔재이고 오늘날 민족국가 관심의 표시이다. 실제로 영토의 경계는 지배하려는 파벌의 관심과 국가의 이득을 건드리는 여전히 예민한 문제이다. 특히 민족주의가 회귀하는 오늘날 우리는 아직도 모든 종류의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대면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화”에 대하여 논하는 오늘의 배경이다.

심리학적인 경계선은 우리의 존재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오늘날 그 문제는 더욱 더 드러난다. 왜냐하면 지구화의 조류에서 특히 인터넷 시대에서 민중의 관심과 국가의 관심은 분리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다국가기업의 잠재적인 독점 지배와 무역 연합이 번성하는 오늘날 개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이 것이 바로 오늘날 “정의” 화제의 핵심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나의 작업 <경계선>은 위의 두 가지 배경에서 실천된다. 나는 다음과 같은 문제에 흥미를 갖는다:

-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의 주권 분쟁은 실제로 특수한 권리와 관계하는가? 그 권리의 무엇인가?
- “살 덩이의 측정” – 우가오종 자신의 몸을 하나의 측정단위로 사용하여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역사적 문명의 과정 속에 살을 제시하는 것이고 현재의 사회 현실은 개인 주권의 진정한 상황에 대하여 분쟁한다. 평화와 정의가 실천된다는 것은 무슨 상태인가?
- 육체의 속수무책은 영원한 제안일 것이다. 신체로 측정한 실제 경계선은 변할 것이다. 그 경계선은 서서히 흩어지고 결국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것이다.
- 잔재들과 육체와 실제 세계의 관계는 상호관계 안에서 고유하고 자연스럽게 결합을 반영한다.

우가오종

2018년 11월 12일

## **Wu Gaozhong — Boundary Line**

Artist: Wu Gaozhong

Title: Boundary Line

Form: Live performance + installation

Dimensions: Variable

Location: South Korea — Daecheong island

Time: November 26, 2018

Implementation process:

1. Collect the objects of local residents as part of the works, and look for remnants at the implementation site. Such as stones, branches, empty bottles, and so on left on the island.
2. Measuring by flesh. On the island, Wu Gaozhong 's body (the artist lies down) is one unit in length, measuring 70 units of distance. "70" is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August and September 1948 respectively, following the delimiting of the 38th parallel.
3. Put the collected objects in the place where the artist's flesh has been measured, forming a long straight line.

Wu Gaozhong

November 12, 2018

## **The Promise to the Flesh —about the works Boundary Line**

The Boundary Line is a relic of history and reality, as well as our own inner needs. The boundary line of the territory comes from the remnant of the historical city-state system and the demarcation of the interests of the nation-state today. In reality, it is still a sensitive issue that touches on the national interests and the interests of the ruling clique. Especially at the moment of the return of nationalism, we still have to face all kinds of unbearable reality. This is the background against which we are talking about "peace" to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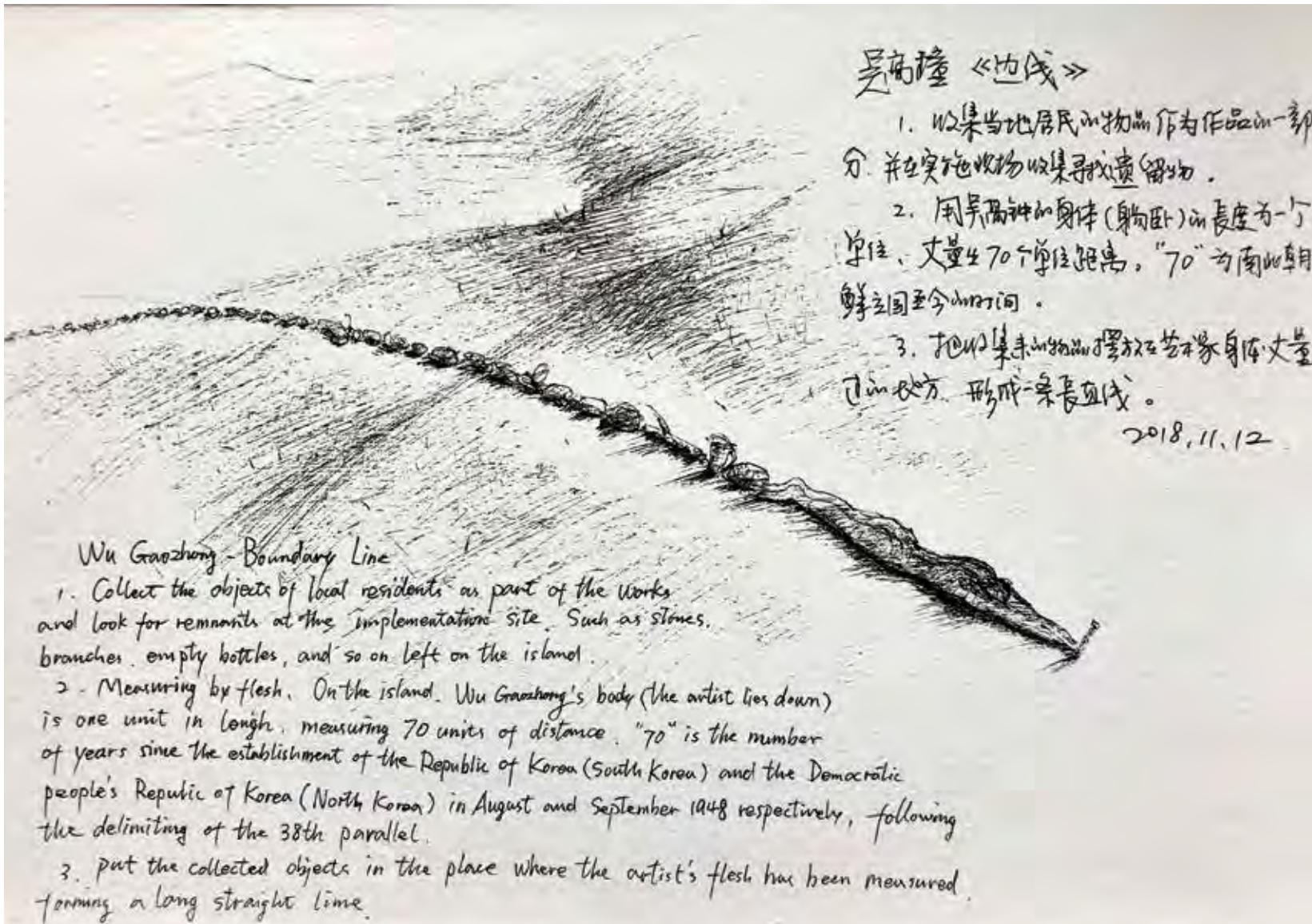
The psychological boundary line comes from the needs of our own existence, and today the problem becomes more and more prominent. Because in the tide of globalization, especially in the era of the Internet, the so-called interests of the people and the interests of the country have begun to actually separate. However, how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s when the monopoly latent rule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trade associations are prevailing today? I think this is the core of today's topic of "justice".

My work Boundary Line is carried out on the above two backgrounds. I am interested in:

1. The sovereignty dispute over Baekryeongdo, Daecheongdo, Socheongdo Islands have something to do with the actual specific rights? What is the right to be covered up?
2. "Flesh measurement" — the measurement of the use of Wu Gaozhong's own body as a unit of measurement is to present the flesh in the process of historical civilization and the current social reality disputes in the real situation of personal sovereignty. What kind of state is the practice of peace and justice in?
3. The helplessness of the flesh will be a permanent proposition. A real boundary line measured by body will change, and will slowly blur or even disappear over time.
4. The relationship among the remains, the flesh and the real world reflect the inherent natural connection in the interaction.

Wu Gaozhong

November 12, 2018



## 吴高鐘 《边线》

1. 收集当地居民的物品作为作品的一部分，并在实施现场收集寻找遗物。
2. 用吴高鐘的身体(躺卧)的長度为一个单位，丈量出70个单位距离，“70”为南北朝鮮立国至今的时间。
3. 把收集来的物品摆放在艺术家身体丈量过的地方，形成一条直线。

2018.11.12

### Wu Gaozhong - Boundary Line

1. Collect the objects of local residents as part of the works and look for remnants at the implementation site. Such as stones, branches, empty bottles, and so on left on the island.
2. Measuring by flesh. On the island. Wu Gaozhong's body (the artist lies down) is one unit in length, measuring 70 units of distance. "70" is the number of years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North Korea) in August and September 1948 respectively, following the delimiting of the 38th parallel.
3. put the collected objects in the place where the artist's flesh has been measured forming a long straight li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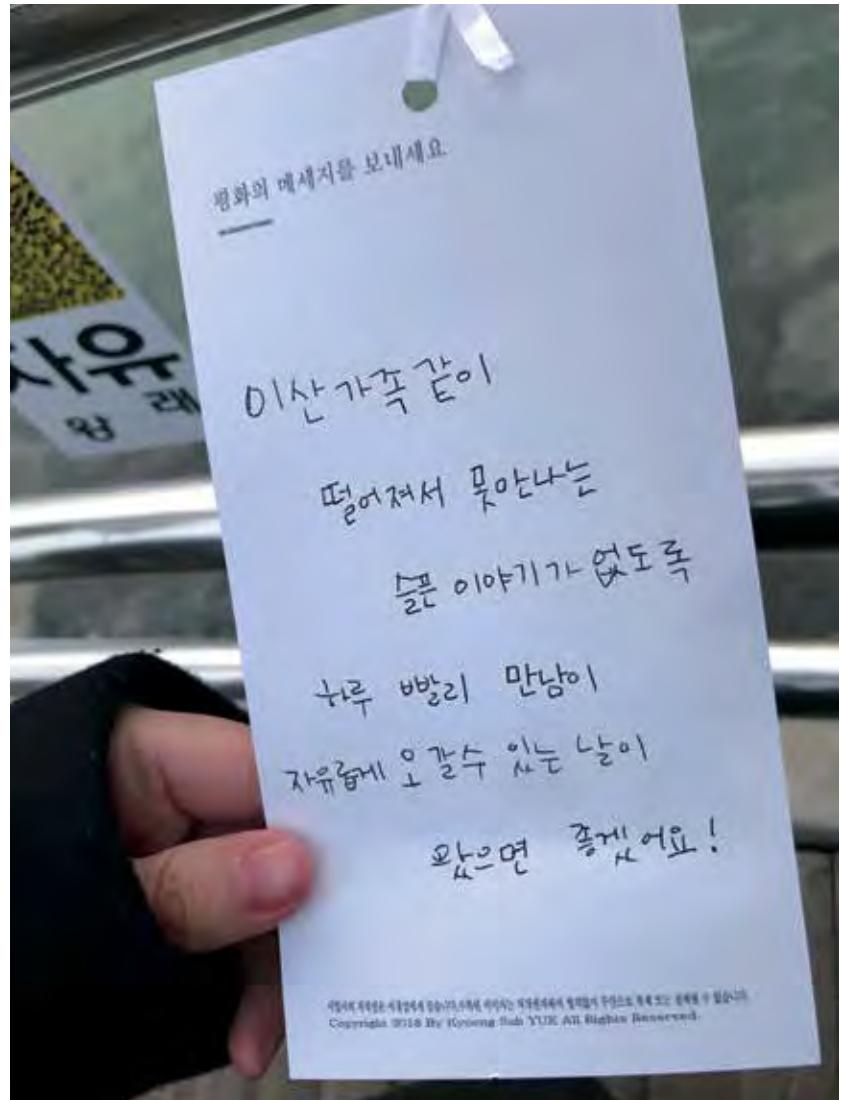
## 여경섭 (대한민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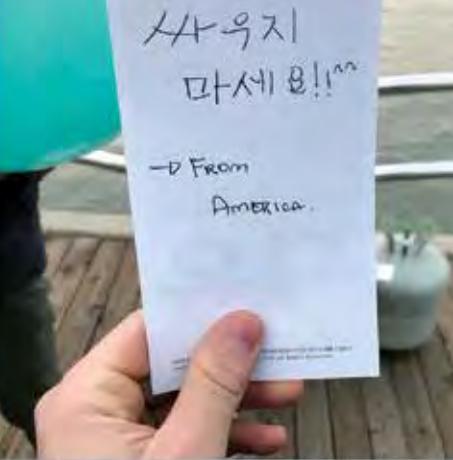
한국과 독일에서 작업하는 여경섭은 2004년 베를린 종합예술대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베를린 종합예술대학교에서 마이스터를 취득했다. 그는 스페인 팔마(2004), 독일 베를린(2005, 2010, 2012, 2015), 서울(2010, 2011, 2018), 대전(2008, 2009, 2011, 2016, 2017) 그리고 공주(2006)에서 개인전을 했다. 2016년부터 개인전과 그룹전을 통해 사진, 조각, 설치, 회화, 비디오와 드로잉 등의 방법으로 ‘증식’과 ‘이주’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여경섭은 2008년 독일에서 디프링 상을 수여받았다. 여경섭은 현재 목원대학교 미술교육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 YUE Kyoeng Sub (ROK)

Kyoeng Sub Yue shares his creative time between South Korea and Germany. Yue studied at the Berlin University of Arts in 2004 and earned a Master Student degree from the same university in 2005. He presented solo exhibitions in Palma (2004), Berlin (2005, 2010, 2012, 2015), Seoul (2010, 2011, 2018), Daejeon (2008, 2009, 2011, 2016, 2017), and Gongju (2006), South Korea. Since 2016, he has been dealing with the subject matter ‘proliferation’ and ‘migration’ in a range of media including photography, sculpture, installation, painting, video and drawing. Yue was awarded the 2008 Differring Prize in Germany. He currently serves as a professor in Fine Arts at the College of Education, Mokwon University, in Daejeon, South Korea.

우측과 다음장 opposite and next page  
<자유왕래>, 2018. 행위; 경과시간 다양. 장소: 월미도, 대청도, 노근리  
Free Coming and Going, 2018. Performance; Durations vary. Sites: Wolmi Island, Daecheong Island, and No Gun Ri.





# 백두산 흑요석과 자유왕래 퍼포먼스 그리고 예술 집배원

## 백두산의 한 조각을 보며

석장리 구석기인들이 백두산 지역에서 가지고 온 흑요석으로 석기를 만들었다. 흑요석은 유리질로 되어 있고 강도는 거의 금강석에 맞먹을 정도로 강하다. 외과 수술용으로 사용해도 될 만큼 날카로워 베거나 자를 때 매우 유용하다. 흑요석을 구하기 위해 구석기인들은 먼 거리를 여행하거나 교역하였을 것이다.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는 구석기인들의 삶을 더욱 윤택하고 풍요롭게 만든 혁신적 도구가 되었다.

우리는 반세기 이상을 경쟁과 갈등의 합수머리(합수목)에서 방향성 없이 틀고 틀았다. 이제 나는 그것을 허물어 다시 흐르게 할 힘을 가진 흑요석 같은 예술을 찾아 여기저기 배달하는 여행을 떠나려 한다. 자유왕래는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을 위한 나의 답이다.

## 대청도 그리고 자유왕래 퍼포먼스

연평도 포격 이전까지 군인을 제외하고 연평도를 포함한 서해5도에 거주하는 민간인의 존재를 나는 모르고 살았다. 있던 길도 다니지 않으면 사라진다. 유수의 미디어들이 동남아와 남태평양의 섬들을 앞 다투어 노출시키고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닿는 동안 정작 우리의 섬은 잊혀져 왔다.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의 또 다른 막을 올리는 대청도는 어디에 있을까? 1953년 국제 연합군이 선포한 북방한계선과 1999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선포한 조선 서해 해상 군사분계선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해상 DMZ 안에 있다는 전시 포스터의 표현은 맞다.

2018년 12월 23일 인천 신포동 선광미술관에 한국, 중국, 미국 작가들이 모여 조그만 리셉션을 가졌다. 이북 작가들도 함께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24일 오전 7시 50분 대청도로 출항하는 배를 타기 위해 월미도 숙소에 집결했다. 늦은 밤 까지 중국작가들과 프로젝트를 넘나드는 다양한 대화를 번역기의 도움으로 나누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새벽을 맞이했다. 11월 24일 토요일은 해상의 기상악화로 인해 배를 탈 수 없다는 연락을 해운사로부터 받았다. 한행길 큐레이터가 7시 30분 로비에서 작가들과 미팅을 주선했고 일정을 상의했다.

기상문제는 나의 대청도 프로젝트 참여 일정 뿐만 아니라 퍼포먼스 계획도 무산될 지경으로

만들었지만 대안으로 대청도 주민대신 월미도를 산책하는 시민들, 여행자들과 퍼포먼스를 하기로 했다. 나는 개인적으로 관계미학 기반의 참여 미술을 선호하는데 이유는 직접적인 소통을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용이하고 상황에 따라 아이디어를 유연하게 더 좋은 방향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나의 자유왕래 염서 풍선 날리기는 체제선전용 빠라 날리기가 아니라 평화를 바라는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을 나누고 실천하자는 의미를 담는다. 한행길 큐레이터, 이정형 작가, 한국종합예술학교 대학원생들의 도움을 받아 함께 했다.

자유왕래란 문구와 나의 사족이주군상(四足移住群像) 그림이 인쇄된 염서에 평화의 메시지를 적어 알록달록 다양한 색의 헬륨가스 풍선에 매달아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는 어린아이에서 외국인들까지 참여하며 성공적으로 행해졌다. 그중에 미국인의 ‘싸우지 마세요!’라는 메시지를 보고 우리는 저들이 ‘누구와 누가 싸우고 있는지 알고 있을까?’라는 질문과 답을 나누었다. 25 일 일요일 아침 나는 아쉬움을 달래며 작가들을 여객터미널에서 배웅하고 세종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28일 백령도행 배를 타기 위해 이른 새벽 세종시를 출발해 7시 50분 백령도행 배를 타고 대청도에서 한행길 큐레이터, 전종철 작가와 합류해 백령도 해변과 주민이 알려준 비경을 탐방하며 프로젝트에 관한 사진도 찍고 의미를 나누었다. 다음날 자유왕래 퍼포먼스를 하기 위해 대청도로 들어갔다. 백령도와 대청도를 여행할 충분한 여유가 일정상 확보되지 않아 자세히 들여다보지는 못했지만 낮에는 출입이 허락되고 밤에는 출입이 금지 되는 곳이 많으며, 일찌 봄바람 절경에는 군부대와 초소가 자리 잡고 있어 일반인에게는 허락되지 않음을 깨닫는데 미간의 시간이면 충분했다.

백령도 심청각에서 바라본 이북의 땅은 손에 닿을 듯 가까운데 백령도와 이북 땅 사이의 바다에는 검은색의 중국 어선들만 자유롭게(?) 왕래하며 조업한다. 이념이 이 땅 위에 그리고 만든 드로잉과 설치가 지워지고 제거된 세상을 생각하며 백령도 사곶해수욕장을 맨발로 걸었다.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의 실현은 빼어난 풍경이 아니라 그곳에 사는 생명이고 삶의 실현이다.

29일 한행길 큐레이터와 대청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장·교감 선생님을 만나 전시초대를 하였고 두 분의 격려와 조언을 들었다. 교장 선생님의 소개로 미카엘 신부님을 만났다. 신부님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 살면 좋은 심성이 생기지만 인간이 완성되는데 예술이 필요하다며 격려와 덕담도 해주셨다. 대청도의 전시 초대는 발로 뛰고 입으로 직접 전하는 일종의 관계 미학적

미술행위의 연장이었다.

나와 한행길 큐레이터는 전시장인 대청도 구 면사무소로 돌아오는 길에 농협마트에 들러 방앗간을 수소문해서 다음날 전시장을 찾을 선생님과 학생들 그리고 전시장 주변 주민들과 함께 나눌 떡을 주문하고 음료수를 구입했다. 인심 좋은 숙소 주인장이 준 삼치 몇 덩어리로 저녁을 먹으며 프로젝트와 전시의 과정을 분석하고 부족한 점, 개선해야 할 점 등을 나누었다.

30일 11시 쯤 되자 전시장 밖에서 건강한 소란이 들린다.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도착했다. 나의 간단한 미술관 교육이 끝나고 한행길 큐레이터의 적극적이고 세밀한 작품 설명이 있었다. 미술작품을 대하는 선 아이들의 진지한 관심이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에 힘을 보탠다. 아이들은 떡을 먹으며 작품을 감상하고 더러는 사진도 찍고 있었다. 예술작품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품위가 아이들의 거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예술은 삶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예술이 된다.

드론을 자유롭게 날리고 싶다는 대청도 아이의 희망처럼 자유왕래 엽서 풍선 날리기는 대청도의 희망사항으로 남고 말았다. 대청도의 아이들도 나도 풍선을 날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전시장에 엽서를 놓았고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평화의 메시지를 엽서에 적었다. 오후에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 몇 명을 데리고 전시장을 찾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엽서에 적었다.

이북에 사시다 15살에 피난 와서 대청도에서 지금까지 사신다는 할아버지도 다녀가셨다. 이북 작가의 백두산 천지 그림을 보시며 여기는 가봤으면 싶다고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70여 년 동안 고향 땅을 지척에 두고 밟을 수 없는 그리움의 한을 백두산 천지 그림이 끌어 당기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아래층 노인회관에서 봉사하시는 아주머니들이 오셔서 전시와 작품으로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다. 전시된 그림과 사진을 감상하고 즐기는 모습에서 고운 심성이 저절로 드러난다. 나는 대청도의 평화메시지를 인천으로 돌아오는 배위에서 날리거나 혹은 연안부두여객터미널에서 날릴 계획을 세웠으나 두 계획 모두 그저 희망으로 끝났다.

인천에서 세종으로 돌아오는 길에 퍼포먼스의 의미를 제고하고 대청도 주민의 메시지를

노근리에서 날려 보내기로 했다. 노근리는 내가 수년 전 전시 때문에 여러 차례 유족을 만나고 방문했던 곳으로 미군의 남한주민 학살 현장이다. ‘작은 연못’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비극적 사건의 장소이다.

### 대청도 평화 메시지와 노근리

1950년 7월 25일에서 7월 29일까지 5일간 충북영동군 황간면 노근리 경부선철로 일대에서 미군 비행기 폭격 및 기관총사격으로 250~300명의 민간인 피해인원이 발생했다. 폭격과 기관총 사격으로 철로 위 피난민 다수가 사망하고 노근리 개근철교(쌍굴)에 피신한 피난민들은 70시간 가까이 사실상 그곳에 갇혀온 상태에서 미군의 기관총 사격으로 다수의 피난민이 학살됐다. 한반도는 여기저기 구석구석 아프지 않은 곳이 없다. 이념은 약자의 상처를 외면하고 소외하는 방법으로 덮었다. 노근리 피해자들은 ‘그날’을 세계인들이 인권과 평화라는 인류의 핵심가치로 되새기길 바라고 있다.

오전 강의를 마치고 역사문제를 예술적으로 기록하는 작업을 하는 여상희 작가에게 퍼포먼스를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함께 노근리로 향했다. ‘그날’의 무게 때문인지 갑자기 추워진 날씨와 바람 때문인지 대청도에서 가져온 자유왕래 평화 메시지 엽서를 매단 풍선이 잘 뜨질 않아 풍선 두 개에 엽서 한 장을 매달아 평화를 염원하며 자유왕래의 희망을 날려 보냈다.

나는 평화의 시대와, 평화로운 땅을 꿈꾸는 모든 세계인들에게 한반도가 소외에서 상생의 원본이 되기를 바란다. 서해 5도가 세계평화의 방점이 되길 바란다. 경쟁과 대립의 시대장벽은 자유왕래로 많아 마침내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

### 그리고

12월 3일 대청도 주민 류석자 님의 문자 메시지는 예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잘 해드린 것도 없이 그림은 또 바다건너 여행을 떠나려 봅니다. 마음을 울리던 사실상 DMZ 란 글귀가 새삼스럽게 느껴졌던 건 늘 이렇게 살아서 무뎌진 탓이겠지요.. 정말 평화로운 그날이 오기나 할까요..  
이 먼 곳까지 기꺼이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진 한 장 못 남겼지만 잊지 못할 것 같네요~ “

여경섭, 2018년 12월 9일

# The Volcanic Glass from Mt. Baektu, Free Coming and Going Performance, and Art Distributor

## Seeing a Piece of Mt. Baektu

Paleolithic people from Sokchang-ni, Korea, made stone tools out of obsidian that they took from Mt. Baektu. The obsidian is a kind of glass and its strength is comparable with diamond. It is so sharp that it can be used for surgery and is good for cutting and slicing. These people must have travelled far or engaged in trade to get the volcanic glass. The tools they made from it were trailblazing, making their lives abundant and comfortable.

Aimlessly, we have been going around in circle at the confluence of competition and conflict for more than a half century. I am now about to undertake a journey of discovery to find a (true) art with the power, like the obsidian, to break the circle and help us flow forward again. The *Free Coming and Going* performance is my response to *An Era of Peace, A Peaceful Land*.

## Daecheong Island and Free Coming and Going Performance

Before the shelling of Yeonpyeong, I didn't know there were civilian houses on the five islands in the West Sea including the Yeonpyeong island. I only knew about the armed forces bases. A path disappears when no one uses it. Many Korean media companies advertise South Asian islands and islands in the Pacific Ocean. While many Koreans visit these foreign soils, our islands are actually forgotten.

Where is Daecheong Island, where another curtain of the West Sea Peace Art Project will be lifted? In 1953, the United Nations Command set up the Northern Limit Line. In 1999,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laimed the Korea West Sea Maritime Military Demarcation Line. Because of this disputed maritime boundary, the exhibition poster correctly presents that Daecheong island is practically within the maritime DMZ.

On November 23, 2018, artists from South Korea, China, and the US came together to Seon Kwang Museum in Sinpo Dong, Incheon, having a small reception. A sense of frustration was in the air at the absence of North Korean artists. They gathered at the hotel on Wolmi Island to catch the ferry to Daecheong Island at 7:50 am the next day, November 24. With the assistance of Google translation, we engaged in conversation with Chinese artists on diverse themes beyond the scope of the project and went to bed very late. After a short sleep, I got up at dawn. The ferry was cancelled due to deteriorating weather conditions. The curator Heng-Gil Han called an emergency meeting and discussed the day's schedule.

The weather almost meant the cancellation of my participation in the group journey to Daecheong Island and my performance. But I decided to carry out my planned performance with visitors to Wolmi Island instead of local residents on Daecheong island. I personally like participatory performance art practices based on relational aesthetics. The reason is that it allows direct communication with the audiences of my performance and makes it easy to build a shared sense of empathy. It also flexibly allows spontaneous changes of ideas and methods according to given or unfolding situations, enabling the artist to carry out the performance in a better, unexpected way.

My performance, *Free Coming and Going*, involves flying balloons carrying postcards of people's peace wishes. It is not an attempt to fly leaflets of ideological propaganda, but to practice and share the universal mind that loves peace. I performed it with the assistance of Heng-Gil Han, the project's curator, Jeong Hyung Lee, an artis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and graduate students from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performance has few components: postcards, balloons, and interactions with people. The phrase "Free Coming and Going" and an image of my work, *People Moving with Four Legs*, are printed on the postcards. Passersby are asked

to write a peace message on one of the postcards. The postcards conveying the peace messages are tied to colorful helium gas balloons and eventually released to fly away. We engaged with children, young adults, and foreigners, making a success of the performance. One American participant wrote, “Don’t Fight!” Looking at the message, we talked about whether Americans know “who is fighting with whom?” On the morning of Sunday, December 25, I saw the other artists off at the ferry terminal and returned to my home city, Sejong.

After a few days, on November 28, I departed Sejong City in the early morning to catch my ferry to Baekryeong Island at 7:50 am. Heng-Gil and Jong Cheol Jeon, another artist participating in the project, joined me at the Daecheong Island stop to go to Baekryeong Island with me. We walked on a beach, and we explored areas that residents told us had less tourist traffic. We took many pictures and discussed unknown but possible meanings of the island’s landscapes. On the next day, I moved to Daecheong Island to do my performance. I didn’t have enough time to fully explore both Baekryeong and Daecheong Islands, but I had enough time to learn that many areas are only open during the daytime. Places of remarkable beauty are occupied by soldiers and guard posts and are closed to civilians.

The North Korean land seen from the Simcheong Gak on Baekryeong island seemed very close, as if you could reach out and touch it. Black Chinese fishing boats were freely (?) coming and going on the strait between Baekryeong island and the North Korea. I walked barefoot on the Sagot beach and reflected on a world where drawings and installations placed by ideologies are removed. An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is not a stunning landscape but the realization of life on that land.

On November 29, I joined Heng-Gil in visiting the Daecheong middle and high school to meet the principal and the associate principal. We invited the students to the exhibition. They welcomed our invitation, and gave us words of

encouragement and advice.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rincipal, we met Father Michael, a local priest, who blessed us and told us that a person needs art to become full, even if he or she develops a beautiful mind while living close to nature. Inviting people to the exhibition involved running around and meeting people, and delivering messages personally. This in itself was a kind of art action of relational aesthetics.

Heng-Gil and I stopped by at a store run by the National Agricultural Cooperative on the way back to the former town office of Daecheong, where the exhibition was taking place. We asked where to get rice cakes. We placed an order for rice cake and purchased refreshments to share with teachers,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who would visit the exhibition the next day. We passed by our lodgings and the owner gave us a few pieces of Japanese Spanish mackerel for our dinner. While eating, we discussed on the project, the process of the exhibition, and parts to be improved.

On November 30, at around 11 am, we heard a lively noise from outside. Students and teachers had arrived. After I gave a brief talk on museum education, Heng-Gil led an exhibition tour giving a detailed explanation about the work in the exhibition. Students were very eager to learn about the works, demonstrating the need for this kind of project. Students had rice cakes, enjoyed art, and some took pictures. As an educator, it occurred to me that students mirror the teacher’s attitude and behavior toward works of art. Art becomes true when it is present in the real environments of life.

One of the children who visited the exhibition wrote a message saying that she hoped to be able to fly drones one day. Like the hope of this child, flying the postcards and balloons was the hope of the whole island. The children didn’t say why they couldn’t fly the balloons. The students and teachers wrote peace messages on the postcards, which were displayed in the exhibition. In the afternoon of the same day, a teacher came with a few elementary students. They

also wrote peace messages on the postcards.

An old man who used to live in North Korea came to the exhibition. At the age of 15, he was exiled from North Korea during the war. Since then he has been living on Daecheong Island. Looking at North Korean paintings of Heaven's Lake at the summit of Mt. Baektu, he quietly said that he would like to visit the lake. Although it was so close, it had been seventy years since he could set foot in his own hometown. I wondered if his longings for home were awakened by the painting of Mt. Baektu.

Volunteer women from the senior center downstairs came and engaged in joyful conversations about the exhibition and the work in it. Their enjoyment and appreciation of paintings and photographs revealed their refined mindset. I planned to fly the island's peace messages on the returning ferry to Incheon or at the Yeonan Terminal, but both of my alternative plans remained as a hope.

On the way back to Sejong from Incheon, I reflected on the meaning of my performance and I decided to fly the messages from the residents of Daecheong Island at Nogeun-ri, the site of a massacre. I visited several times a few years ago to meet the families of people who were murdered by American soldiers in 1950, early in the Korean war. It is a place of tragedy, the story of which was made into the movie "Small Lake."

### **Daecheong-do Peace Messages and Nogeun-ri**

During the five days from July 25 to July 29 in 1950, the U.S. army committed heavy air attacks on areas near Nogeun-ri, Hwanggan-myon, Youngdong-gun, Choongbook. Escaping from the air attacks, civilians sought a safe place under the twin-underpass railroad bridge at Nogeun-ri. However, they were trapped in the underpass for 70 hours, and soldiers on the ground fired machine guns at them, killing 250-300 victims. There is no 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at is not painful. Ideology ignored tragedies of the weak and buried them, alienating

them. The victims of Nogeun-ri want citizens of the world to memorialize that day; it speaks to the core of human values, human rights and peace.

After my morning seminar, I explained my performance to Yue Sang Hee, who is an artist documenting historical problems through art. I asked her for help and went to Nogeun-ri with her. The balloons which the postcards of peace message from Daecheong island were tied to didn't fly well, as if they were held down by the weight of the historical moment. Or maybe just the cold weather and wind. We had to tie two balloons to a postcard to send off all the hopes for peace of "Free Coming and Going".

It's my wish that the Korean peninsula becomes a model for living together, instead of being an example of alienation, to all people on the world who dream of an era of peace and a peaceful earth. I wish that the West Sea Five Islands were to become a tipping point for world peace. I hope that the walls of our time,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erode through the free coming and going of people, whereby an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finally come to b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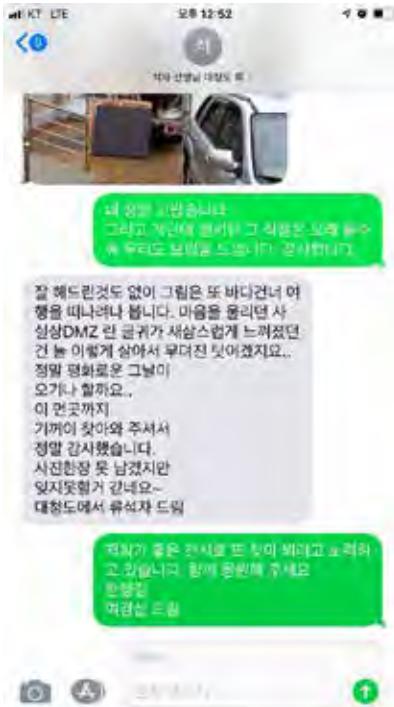
### **And**

A resident of Daecheong island, Ryu Seok Ja, sent a text message on December 3, pointing out something about art in terms of what it does:

*"We haven't given you much, and the paintings are ready again to begin their journey over the sea. The touch phrase "Practically DMZ" felt new because perhaps we always lived like this and we became used to it. Would that a peaceful day really comes someday.*

*I really thank you for visiting us, travelling all the way across the world to be here. I haven't had a chance to take a picture but I would never forget it."*

Yue, Kyoeng Sub, December 9, 2018



## IV. 반응/결과 Reactions / Outcomes

"We haven't given you much, and the paintings are ready again to begin their journey over the sea. The touch phrase "Practically DMZ" felt new because perhaps we always lived like this and we became used to it. Would that a peaceful day really comes someday.

I really thank you for visiting us, travelling all the way across the world to be here. I haven't had a chance to take a picture but I would never forget it."

- Ryu, Seok Ja, a resident of Daecheong Island.

## 감사의 말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 서해평화예술프로젝트의 선정사업 14개 중 하나인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국제 전시의 대청도 개최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와 해외의 우수한 작가들을 서해 5도로 초청하여 짧은 기간이나마 한반도의 긴장을 직접 체험하게 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작품을 제작하고 발표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프로젝트는 한반도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전 지구인들의 지지를 도모하는데 조그나마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는 한반도의 평화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염원을 재확인하고,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버린 긴장과 그 부정적인 여파를 되돌아 볼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또 미술작품을 자주 만날 수 없는 우리 대청면민 여러분들께 현대미술을 감상하는 흔치 않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으로도 의미가 충만한 프로젝트입니다.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는 앞으로 대청도에서 보다 더 많은 문화예술 사업들이 확산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전시는 자주 소외되는 현대미술의 대중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의미 있고 소중한 전시회를 마련해 주신 공동기획 팀 김예미, 이경모, 한행길 감독님들과 대청도를 방문해 주신 작가님들, 그리고 관계자님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수준 높은 작품 전시를 통하여 대청도와 현대미술이 더욱 사랑 받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청면장 박춘봉

## Letter of Appreciation

I wish to express my sincere appreciation and congratulations to the international exhibition, *An Era of Peace, A Peaceful Land*, awarded as one of the fourteen 2018 West Sea Peace Art Projects sponsored by the Incheon Foundation for Art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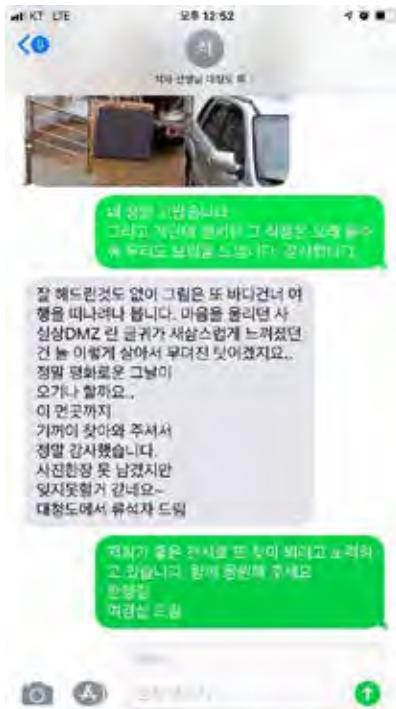
The exhibition invites outstanding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tists to the five islands of the West Sea, providing them with an opportunity to experience the tensions on the islands for a few days and present new work they create based on their experience. The project is meaningful in its contribution to expanding global communities supporting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The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is also significant on the local level. It confirms the eagerness of Koreans for the peace process. The exhibition offers an opportunity to reflect on tensions, which have become a part of everyday life in Korea, and as such, these tensions exert negative impacts on everyday life. The exhibition also provides our residents with a rare opportunity to see contemporary art on our island where art exhibitions are seldom offered.

The *Era of Peace and A Peaceful Land* will become a stepping stone for more arts and cultural events to be offered on the island. It also is anticipated to contribute to introducing more people to contemporary art, which is often seen to be uninteresting and alienating.

I thank the curatorial team, Yemi Kim, Gyeong Mo Lee, and Heng-Gil Han, who organized this meaningful and valuable exhibition, all the artists who visited our island, and the people who worked behind the scenes. I hope this exhibition through its presentation of excellent artwork brings attention to our island and cultivates a greater appreciation for contemporary art.

Chun Bong Park, Head of Daecheong Myon



"We haven't given you much, and the paintings are ready again to begin their journey over the sea. The touch phrase "Practically DMZ" felt new because perhaps we always lived like this and we became used to it. Would that a peaceful day really comes someday. I really thank you for visiting us, travelling all the way across the world to be here. I haven't had a chance to take a picture but I would never forget it."

- Ryu, Seok Ja, a resident of Daecheong Island.

"Yes. I really thank you! And the longer you hold the artwork on the staircases, the more we feel rewarded. Thank You!"



대청도 학생들의 전시 참관

Daecheong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aking a gallery tour



백두산을 그린 조선화를 보고 있는 북한에서 1940년대 태어나신 실향민

A man who was born in North Korea in the 1940s looks at the painting of Mt Baekdu.



여경섭의 행위 작업 <자유왕래> 우편엽서

Postcards of Yue Kyoeng Sub's performance Free Coming and Going



<자유왕래> 우편엽에 평화의 메시지 작성하는 대청도 학생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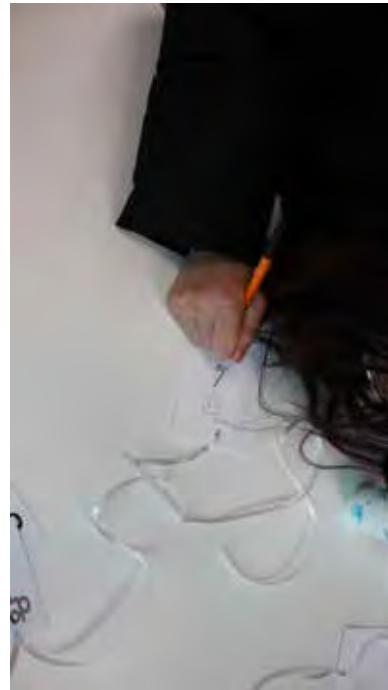
Students writing a peace message on postcards of Yue Kyoeng Sub's performance  
Free Coming and Going



Let's live in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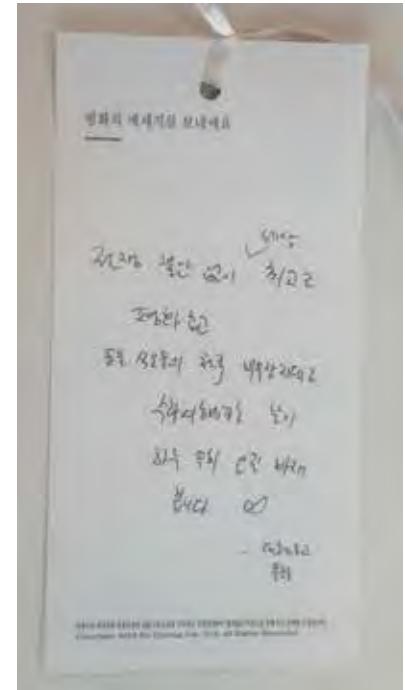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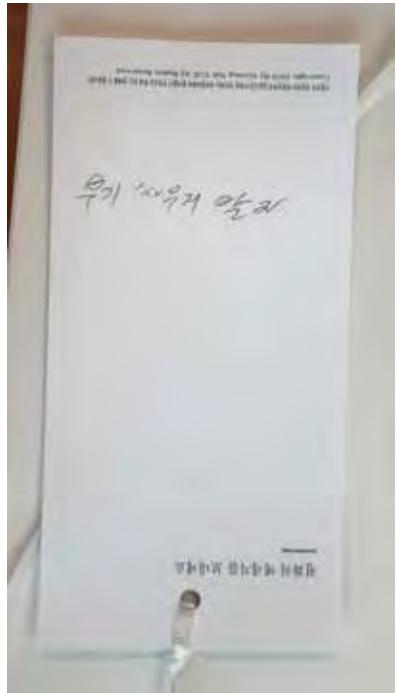
Let's live in pea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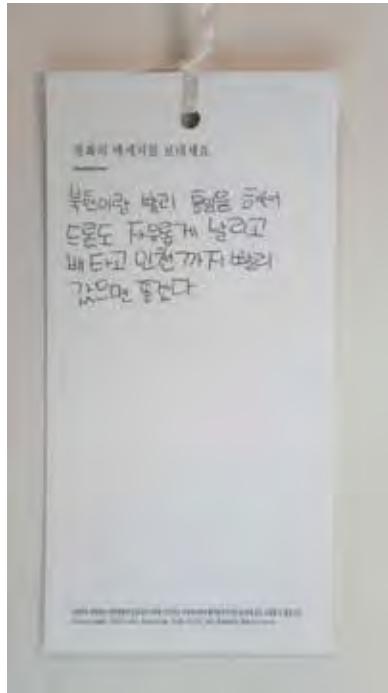
We want to do a class trip to the DMZ, the world's most peaceful place and a paradise for animals and plants as soon as possible, without worrying about a war.

## — Message from Daecheong Middle and High School





Please let's not fight!



I wish to unify with North Korea so that we can fly drones and can go to Incheon faster than now.



전시를 참관하고 평화메시지를 작성하는 대청도 자원봉사 부인회 주민들  
Members of Volunteer Women's Club who were attending  
the exhibition and wring a peace mess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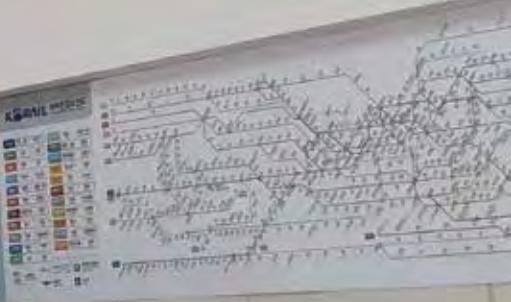
싸리재 카페에 설치된 그룰론의 리플렛  
An installation view of Grullon's booklet at Ssarijae Cafe



인천역에 설치된 이정형 <평화의 땅>  
An Earth of Peace by Jeong Hyung Lee, installed at Incheon Station.



 StoryWay



## 인천역에 설치된 여경섭의 사진과 리선명의 유화작업

## Yue Kyoeng Sub's Photograph

and an image of Ri Seon Myong's Painting, installed at Incheon Station.

## 지금, 남북의 '메시지'



현회에 비관이 두는 요즘, 그 난이기이 맞는다. 남한, 북한, 중국, 미국의 농지내 비슷작품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어렵다.

우리군단에 솔잎구이에서 4일부터 10일 까지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전시가 전개된다.

이번 전시는 중·미·아시아의 작품이 함께 어우러져 대남의 미학을 극복하고 한반도의 미학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지며, 이정도, 관광인 작가가 가능한 기회였으나, 인천군민세계 미술아울렛처럼 서대문회예술관과 함께 전시장으로 확장된 사업이다.

우리나라 역사의 사상의 전통, 기억을 표현하는 서유한 작가의 전시(4·27 남북 전선화된 인하선 백년을 새운 백년도 수복과 함께 신대수 작가), 미국 미니멀리즘의 거장이자 프로세스 아트의 장시자 로버트 모리스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들과 함께 남자는 신진작가 총 32명

이 전시의 메시지를 통해 아교 전시에 접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지난해 11월, 12월의 날간, 중국, 미국 작가들이 서해 5도를 날자고 현장에서 제작한 작업들을 선보인 예정이다.

서원대 교수인 이관선 작가는 원비도원 그에게 대신도 주민들이 전 평화의 메시지를 뮤지엄에 묻어 놓았다. '자유한데' 비고미스 가곡은 뒤여졌다. 또 신진작가 유튜버(과)에 따르면 이번 전시는 인천도 해변가에서 수영해 허락하고 재구성된다. 어찌나 북한에서 찾은 지도로 그는 여성들로 둔장을 지어롭게 오고 간 수 있지만, 한시 지침들은 지어롭게 남니는 수 있는 현실의 문제를 제작한다.

세계지도를 기준으로 놓은 미미사를 제작한 이현경 작가(전시 리가 포스터를 제작해 인천시 지하철 역에 배치할 계획이다.

### 인천문화회관 '평화의 시대, 평화로운 땅'

#### 南·北·中·美 작가들 작품 30점 어우러져

한국의 유방 작가 우가승은 대장도에서 신생한 패포먼스 기록을 비디오 영상으로 전부 한다. 작가는 디비드의 접속에 와 유사하게 차기 삶의 험마을 모두 함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는 초성회도 전시가 마지막으로 미국 끝위 미술의 제스처를 초월스럽게 응용해 유화와 물화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조선회도를 수 있다.

전시는 기획한 한인간 작가는 "평화는 전쟁과 부제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의 대장도 순의 교류 패포먼스 기록과 미술작가 일련시아 난문본의 힙볼lett 사진들이 전시된다.

북한작품 또한 수복할 만하다. 경대중 재능경의 빛낸 정적이며 날은 미술은 우리에게 많이 소개됐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근

우 북한의 미술을 살펴 볼 수 있다. 이번 작품들을 통해 북한이 살펴보나 같이 개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는 초성회도 전시가 마지막으로 미국 끝위 미술의 제스처를 초월스럽게 응용해 유화와 물화기법을 사용하기 시작한 조선회도를 수 있다.

전시는 기획한 한인간 작가는 "평화는 전쟁과 부제가 아니라 사랑과 사랑의 대장도 순의 교류 패포먼스 기록과 미술작가 일련시아 난문본의 힙볼lett 사진들이 전시된다. 북한작품 또한 수복할 만하다. 경대중 재능경의 빛난 정적이며 날은 미술은 우리에게 많이 소개됐다. 그러나 이번 전시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근

## Generous funding provid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rts Council Korea

## 관대한 보조금을 제공해주신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천문화재단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한국문화예술위원회  
Arts Council Korea

# 감사합니다!

# THANK YOU!



asian cultural council

본 도록은 인천광역시, (재)인천문화재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형사업으로 선정되어  
발간하였습니다.



This catalogue is published as a regional  
cooperative project selected by Incheon  
Metropolitan City, Incheon Foundation for  
Arts & Culture, and Arts Council Korea.

###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

Additional support has been generously provided by public funds from  
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Cultural Affairs in Partnership with the City  
Council. The curatorial research was generously supported by fellowship funds  
from Asian Cultural Council and The Andy Warhol Foundation for the Visual Arts.